



월간 북한동향

제5권 제4호 (2011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5권 제4호 (2011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7 July 2011

① 주차_7.01-7.03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② 주차_7.04-7.10	1. 대내 1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2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32
③ 주차_7.11-7.17	1. 대내 3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4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50
④ 주차_7.18-7.24	1. 대내 5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6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71
⑤ 주차_7.25-7.31	1. 대내 7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85
	3. 대남 86

인쇄: 2011년 9월 발행: 2011년 9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8 August 2011

① 주차_8.01-8.07	1. 대내 9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9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02
② 주차_8.08-8.14	1. 대내 10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1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16
③ 주차_8.15-8.21	1. 대내 12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3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34
④ 주차_8.22-8.28	1. 대내 13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5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54
⑤ 주차_8.29-8.31	1. 대내 15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66
	3. 대남 167
■ 7월 일지 / 170	
■ 8월 일지 / 173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01-7.03

7월
1주차

1. 대내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김정은과 963군부대 공연 관람(7/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부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남성중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합창 ‘조선청년행진곡’ 등을 선보인 이번 공연에는 리영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수행

- **北김정일·정은, 보위부 가족 등 공연 관람(7/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이날 공연에는 군 제10215부대(국가안전보위부 대외 명칭) 외에도 제963부대, 조선인민내무군의 군인가족들이 참가
 - 김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 외에도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北총리, 전력난 속 북창화력발전소 방문(7/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영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전함.
 - 중앙통신은 2일 “최영림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파악)했다”며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함.

- 이어 “협의회에서는 기업소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연관단위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고 덧붙임.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예술선전대 공연 관람(7/1, 중통)
 - 김정은, 리영호, 김기남, 장성택, 김정각, 우동측, 이명수,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黨 중앙군사위 위원들), 현철해(국방위 국장) 등 함께 관람
- 김정일, 인민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7/3, 중통·중방)
 - 김정은, 리영호, 김기남, 장성택, 김정각, 우동측, 김창섭, 리명수, 김경옥, 김원홍, 김영철, 윤정린, 현철해 등과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7.1 국제김일성기금 이사장(쥬니 훈)과 일행을 만나 담화(7/1, 중통)
- 박의춘 외무상, 7.1 필리핀공화국 외무상대표단과 담화(7/1,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정형 現地了解(7/2, 중통)

나. 경제

● 유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비공개 호소(7/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이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비공개 모금 설명회를 열고 대북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호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유엔의 한 관리자는 이날 방송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달 27일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대북사업을 소개하고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대북지원 사업이 각국의 지원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벙커 대변인에 따르면 대북 지원 사업은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음.

● “중기업, 위화도 개발 추진”(7/1, 중국경제신문)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함께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압록강의 섬 위화도에 대해 중국기업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경제신문이 1일 보도
- 언론에 따르면 2006년 설립된 랴오닝(遼寧)위화도투자그룹은 같은 해 북한과 위화도 국제물류센터 건설 협약을 체결했으며 평안북도농촌관리위원회로부터 200만㎡ 규모의 농업용지 이용 허가도 받음.

● “EU, 2008년부터 北에 3천만달러 상당 지원”(7/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 원조협력청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2천240만 유로(미화 약3천254만461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 보도
- 대북 지원 내역을 다룬 유엔 보고서(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DPRK)에 따르면 연도별 지원금액은 2008년 744만 유로, 2009년 255만 유로, 지난해 845만 유로로 각각 집계됐고 올 들어 5월까지의 북한에 398만 유로를 지원
- 한편 RFA는 미 국무부가 다음 달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망

■ 기타 (대내 경제)

- 기계공업부문 124.8%·경공업부문 122% 및 유선탄광·합흥목재가공공장의 상반기 계획 충족 초과 완수 보도(7/3, 중방)

다. 사회문화

● “北, 가족단위 탈북에 국경경계 대폭 강화”(7/1,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이 최근 형제 가족 9명이 서해로 탈북해 귀순하는 등 가족단위 탈북 사태가 발생하자 국경지대 등에 대한 ‘탈북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1일 대북 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최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09호)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15일 한 형제 가족이 소형선박을 이용해 월남하자

- 해당 지역 보위부원과 보안원을 보직에서 해임
- 이 단체는 “국가안전보위부는 주민들에 대한 바다 출입증을 선별적으로 내주고 군사분계선을 넘기 쉬운 서해안에는 전마선(소형선박) 출입을 금지했다”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도 조업에 타격을 받았다”고 전함.
 - 또 보위부에서는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청하는 지시문을 전국에 내려 보내는 한편 국경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발급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북-중 주민 통화, 단속 피해 北휴대전화로”(7/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개통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양국 주민이 북한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위협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함.
- 북한 내부에 기사를 둔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단속대상인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대신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北 “AP통신과 협정, 조·미관계 개선에 기여”(7/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미국 AP통신이 평양에 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병호 사장이 이끄는 방미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전하고 “조선중앙통신사와 AP통신 사이에 협정, 협조 문건들이 조인된 것은 두 통신사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조미(朝美)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 이해(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일 특별지시로 성병검사”(7/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보건당국은 지난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병검사를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평양의 한 병원에서 비뇨기와 의사로 근무하는 서모씨는 RFA에 이같이 전하고 “성병검사라고 하면 주민들이 수치심을 갖고 검사에 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검사로 위장하고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매독과 임질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됐다”고 밝힘.
- 그는 “성병 감염은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많았고 남성은 부유한 간부층에서 많이 나타났다”며 “생활이 어려운 여성과 권력층 남성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
- 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최근 평양을 비롯해 신의주, 청진 등 대도시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성병 예방을 위한 대비가 없어 주민들 사이에 성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러시아 내무성 내무군아카데미 협주단 공연, 7.2 '리원일'(황해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석下 사리원시 '황해북도 예술극장'에서 진행(7/2, 중통)

2 대외

가. 일반

● 북-필리핀, 문화협정 집행계획서 조인(7/1,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필리핀이 1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2011~2013년도 집행계획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북측에서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필리핀 측에서는 펠리페 멘도자 데 레온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집행계획서에 서명

기타 (대외 일반)

- 중국 공산당 총서기 '호금도'의 自國 공산당 창건 90돌 경축대회 연설문 全文 및 6.30 '베이징 ↔ 상해고속철도'(1,318km) 개통 등 중국소식 보도(7/3,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한·일, 남북대화 우선 방침 재확인(7/1,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제1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열고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 열려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석환 한국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또한 양국은 또 한·미·일 3국간 대북 정책공조를 계속 긴밀히 유지기로 함.
- 사사에 차관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남북대화 이후 6자회담은 물론 다른 참가국 간 양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04-7.10

7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39돌 맞은 ‘7·4공동성명’…북한의 평가(7/4,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 7·4 남북공동성명 39주년을 맞은 4일 오전 조선중앙방송은 ‘7·4 북남공동성명 발표 39돌 사회과학원 반향’이란 제목으로 보도
 - 북한은 7·4공동성명을 김일성 주석의 최대업적 가운데 하나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평가하는데, 6·15 남북공동선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업적 중 하나로 남북관계의 기초가 되는 ‘대강(大綱)’이라는 그들의 평가와 대구를 이룸.
 - 실제로 북한은 김 주석의 통일 유훈을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해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선전하며 7·4에 뿌리를 둔 6·15에 입각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
 - ‘7·4성명은 6·15의 뿌리’라는 북한의 인식과 선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 내포
 -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7·4성명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6·15선언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7·4성명 39돌에 즈음한 논설을 통해 “반민족적인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건 괴뢰역적 패당은 지금 특대형 모략극과 도발행위들을 일삼으면서 북남관계를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

- 北 “평양을 영원한 김일성조선의 수도로”(7/4,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7·4 남북공동성명 39주년을 맞은 4일 ‘평양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의 수도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만수대지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 평양을 영원히 김일성조선의 수도로 빛내어나가자”고 강조
 -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당’ ‘김일성민족’ ‘김일성조국’ 등의 표현으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해왔는데 평양까지 ‘김일성조선의 수도’라고 규정함으로써 김

- 주석에 대한 이상화와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임.
- 노동신문은 또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선전하고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평양학생소년궁전, 옥류교 등 오늘도 훌륭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수많은 창조물들마다 아버지 수령님의 빛나는 영도의 손길이 어리어있다”고 함.

● 北 ‘서해5도 개발계획’ 연일 맹비난(7/6, 우리민족끼리)

- 우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북한이 ‘또다른 도발책동’이라며 연일 비난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서해5도처럼) 위험한 곳에 국제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속심은 바로 관광의 간판으로 북침공격 음모를 가리고 전쟁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다”고 주장

● 北 “핵억제력 보유는 정당”(7/6,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논평 ‘핵위협은 장본인’을 인용, 미국이 한반도에 핵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북한)이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고 밝힘.
- 논평은 미국이 6·25 전쟁 당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진짜 핵위협은 가해자는 미국이며 그 피해자는 우리 공화국”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며 우리 공화국에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
- 논평은 이어 “미국이 대조선핵위협을 가중시키면서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공격을 가하려 하는데 우리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 보유는 당연한 자주권 행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고 강조

● 北공개활동..김정일 ‘경제’·김정은 ‘軍’ 치중(7/6, 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공개활동(현지지도)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경제분야, 후계자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분야에 가장 많이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상반기 공개활동은 총 63회이며, 분야별로는 경제가 28회로 가장 많았고, 군 관련 14회, 외교사절 접견을 비롯한 대외활동 7회, 기타 14회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분야 가운데 경공업과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공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의 경제분야에 대한 공개활동 치중은 경제안정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
- 특히 김 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활동 14회 가운데 김정은이 12회나 수행한 것이 눈에 띄는데,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책에 맞게 후계자로서 군 장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여동생인 김경희(48회) 당 경공업 부장으로 김경희의 남편이자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45회) 국방위 부위원장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8년 와병 이후 김 위원장의 혈육에 대한 의존을 엿볼 수 있는 대목

● 北 “테러 반대에 적극 협력할 것”(7/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6일 김 부상이 지난달 28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협상기구 제50차 회의에서 북한의 김성기 외무성 부상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 부상은 또 “인권문제와 관련해 해결돼야 할 초미의 문제는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생명권과 생존권, 교육문화적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이어 “현재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여러 기구 성원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봉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개별적인 국가에 치외법권적인 강권행위를 막기 위한 구속력 없는 법률적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일, 평북 협동농장·기업소 현지지도(7/6,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용천군 신암협동농장과 신의주시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신암협동농장에서 농장 연혁소개실, 기계화작업반, 청년작업반 시설 등을 둘러보고 “경지면적이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이어 “농사를 집약화·과학화하고 농장원들을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사일에 기계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
- 낙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다”고 말함.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기남·최룡해·김평해 당비서, 이만건 평안북도 책임비서 등이 수행함.

● **조용한 김일성 17주기…경제·승계 방점(7/7, 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17주기(8일)를 하루 앞둔 7일 북한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 기만 하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공식행사로는 5일 평안남도 온천군에서 열린 농업근로자 회고모임, 6일 열린 직맹원의 맹세모임과 여맹원의 회고음악회, 청년학생의 회고무대 정도이고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소형전지 3종, 개별우표 23종 등 기념우표를 발행
- 오히려 김 주석에 대한 추모 분위기보다 지난달 29일 남한 전방부대의 구호를 문제삼아 ‘보복성전’을 공언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이어가는 대남 압박과 위협이 더 요란하며, 또 오는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을 앞두고 친선대표단을 교환하는 등 대외 행사에 더 열을 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공무원 3년마다 재평가…불합격맨 좌천(7/9, 연합뉴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5년 정령으로 채택한 ‘공무원자격판정법’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은 3년마다 이

- 뤄지는 자격판정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공무원 자격판정 시험은 ‘제자리 급수 판정’과 ‘올라가는 급수 판정’으로 나뉘는데, ‘제자리 급수 판정’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한 급’ 내려가는 수모를 감내해야 하며, 가장 낮은 직급인 6급까지 내려간 공무원은 6개월마다 자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에서 공무원이 ‘올라가는 급수 판정’에 응시하려면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특징적
 - 또한 연합뉴스가 1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따르면 북한의 입법기관, 즉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여기에서 일하는 보조일꾼들은 자격판정을 받지 않아도 됨.

● **北지방선거 선거자명부 공시(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중앙통신은 “선거자 명부는 북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에 철저히 준해 작성됐다”며 이같이 전함.

● **김정일, 후진타오에 ‘우호조약’ 50주년 축전(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에게 북중우호조약 50주년 기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조중우호조약 체결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고 밝힘.
- 이어 중앙통신은 이날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보낸 축전에서 “중조 우호조약은 중조관계에서 중요한 문건이고, 중조친선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친선”이라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김정일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7/5, 중방)
- 김정일, 平北 '낙원기계연합기업소와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7/6, 중·평방·중통)
 - 김기남·최용해·김평해(黨 비서), 리만건(平北道黨 책임비서) 동행 및 최종건(平北道 인민투 위 원장), 리철만(平北道 농촌경리투 위원장), 백성남(룡천군黨 책임비서) 등 현지영접
- 김정일,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등에 『감사』 전달(7/10, 중방)
- 김정일,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아 경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7/10, 중통·중·평방)
 - 문경덕(평양시당책), 김기남(黨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최용해(黨비서들), 박봉 주(黨 제1부부장) 동행
- 김정일, 중앙동물원 현지지도(7/11, 중통·중방)
 - 김정은,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박도춘, 최용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춘, 김창섭, 이명수,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黨 중앙군사위 위원들), 현철해 (국방위 국장) 동행
- 김정일·김영남·최영림 - 호금도·오방국·온가보, 7.10 '中-北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 관련 축전 교환(7/10, 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7.4공동성명' 발표 39돌 관련 "김일성 영도의 빛나는 결실,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역사적 사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평가하며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투쟁 강령"이라고 주장(7/4,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7.4李大통령 실명 거론 南정부 비난 '평양시 軍民대회' 10만여 명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7/4, 중통·중·평방)
 - 최영림,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이영무, 김정각, 김양건, 최용해, 문경덕, 김영대, 조선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 등 참가
- 김일성 사망(1994.7.8) 17주기 '추모행사', 7.6 진행(7/6, 중통·중·평방)
- 北노동당친선참관단(단장 : 태종수 黨비서), 7.6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영강(중앙정법위 서기) 과 담화(7/7, 중통)
- 최영림 총리, 7.7 평양 두단오리공장 및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 현지요해(7/7, 중통)
- 최태복, 7.7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베트남 신임대사와 담화(7/7, 중통)
- 北 노동당 친선참관단(태종수 黨비서), 7.6 中 베이징시 당서기 '류기'와 담화(7/8, 중통)
- 김일성 사망 17돌 관련 黨·政 간부들, 軍 지휘성원들, 駐北 외교대표 등, 7.8 금수산기념궁전 참배(7/8, 중방·중통)
- 北 친선대표단(단장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부위원장), 7.9 '朝-中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7.11) 50돌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 출발 및 '베이징' 도착(7/9, 중방·중통·평방)
- 양형섭, 7.9 천진영빈관에서 장고려(中천진시당 서기)와 담화(7/10, 중방)
- 中친선대표단(단장 : '장덕강' 黨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7.10 평양도착(7/10, 중통)
 - 이성림(교통운수 부장), 왕유림(길림성 인민정부 성장), 초하경(국무원 부비서장), 진건(상무부 부부장), 장건생(외교부장 조리), 양연(대외연락부장 조리), 등

나. 경제

● FAO 北대표 “농업에 전 국력 집중”(7/4, 조선중앙통신)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대표가 지난달 FAO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조선(북한)은 농업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적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북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FAO총회 제37차 회의에서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 이념에 따라 앞으로도 기구(FAO)와 모든 성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식량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또 “기구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보장되도록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돌리며 성원국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농업 전략과 정책, 그리고 농업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 EU집행위, 北에 1천만유로 구호식량 지원(7/4,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EU 집행위의 대(對) 북한 식량지원은 지난 2008년 집행위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ECHO)이 평양사무소를 폐쇄하고 직원을 철수시키면서 중단했으나, EU 집행위는 북한의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배급) 절차를 엄격히 모니터링하는” 등 전례 없이 엄격한 조건 아래 구호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 EU 집행위는 1천만 유로(약 155억원)를 대북 구호식량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주로 북한 북부와 동부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주민 약 6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
- EU 집행위는 북한에서 주요 곡물 수확기가 오는 10월에나 돌아올 것이라며, 근년 들어 식량생산이 가장 저조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긴급 구호식량 제공의 이유를 설명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EU 원조·구호·위기대응 담당 집행위원은 “확실히 북한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시급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구호식량의 전용 및 배급 문제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고려해 북한의 항구에 구호식량이 도착하는 시점부터 엄격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다”고 덧붙임.

- EU 집행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노약자 등 가장 취약한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준비된 구호식량이 곧바로 배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 부분이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설명

● **北대학생들 건설현장에 10개월간 동원?(7/5, 미국의소리(VOA); 교도통신)**

- 북한이 올여름 건설현장에 대학생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자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내년을 앞두고 평양시 10만호 살림집 건설 등 대형공사 건설현장에 대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 등이 흘러나오고 있음.
- 5일 VOA에 따르면 국제적인 대학언론 매체인 ‘유니버시티 월드뉴스’는 북한 대학생이 지난달 27일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피터 휴즈 평양주재 영국대사를 인용해 “공식적인 휴교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평양의 대학생들이 2012년 4월까지 평양 근처의 건설 현장에 동원된다”고 밝힘.
- 또 VOA는 최근 방북했던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학생들이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에 동원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학생들을 건설현장에 동원하려고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모든 대학에 휴교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실제로 북한은 청년들의 만수대지구 야간작업까지 소개하며 평양의 건설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북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각종 공장·기업소 등에 투입돼온 게 사실
- 대표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건설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때도 ‘청년돌격대원’으로 평양의 대학생들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南에 농수산물 위장수출 거점 설치 계획” (7/5, 교도통신)

- 한국을 거쳐 북한에 벤츠를 불법 수출한 재일동포가 2008년 한국에 유통 센터를 세워 북한산 농수산물을 제3국에 위장 수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수사관계자는 최근 외환거래법 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된 ‘합동홀딩스’ 임원 안성기(71.조선적) 피의자의 자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문서를 압수
- 문서에는 한국에 유통센터를 건설해 북한산 계나 명태, 송이, 김치 등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 수출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으며, 북한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이 2006년 가을부터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꾸며 위장 수출하려고 함.
- 또한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공작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안씨가 벤츠를 조달하라고 지시한 조선노동당 산하 경제 관련 공작기관인 ‘조선상명’과 함께 한국에 유통센터를 세울 계획이었고, 지난해 가을에는 북한 내 전력설비에 필요한 희귀금속을 조달하려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수풍발전소 전력 북한이 전량 사용”(7/6,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중국이 북한에 관리권을 넘긴 압록강 수풍댐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전량을 지난해부터 북한이 사용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중국 관톈(寬甸) 만족자치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중국 단둥(丹東)의 한 주민은 이 방송에 “수풍발전소에서 나온 전력은 원래 중국과 북한이 50%씩 사용해왔는데 1995년부터는 중국이 전량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북한에는 중국산 원유를 공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이 수풍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전량 북한에 공급하는 대신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말함.
- 신의주의 한 주민은 “수풍발전소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전기사정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와 관련, 단둥 주민은 “수풍발전소 전기는 평양에 일부 공급되고 대부분은 강계 군수공장 등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미국무부, 대북식량지원 금지법안 반대”(7/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국무부가 의회의 대북식량지원 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상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
 - 이 소식통은 RFA에 “국무부가 상원 세출위원장실과 외교위원장실에 대북식량지원 금지규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하원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힘.
 - 국무부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공식적으로 대북식량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식량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측은 농업세출법안 외에도 외교세출법안을 포함, 대북지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 법안에 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앞서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 **EU, 식량분배 감시요원 50명 北에 배치키로(7/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최근 대북식량 지원계획을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인도적지원 사무국(ECHO)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어가 가능한 감시요원 50명을 북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식량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남, 함북, 양강, 강원도 등 동북지역 4개 도에 식량을 우선지원하기로 결정
 - ECHO 관계자는 RFA에 “분배감시요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보장을 받았다”며 “어린이 보호시설과 병원, 식량배급소, 시장, 일반가정 등 400여 곳을 예고없이 방문해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2만t 분량의 쌀과 옥수수, 콩,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것이며, 식량 지원은 이르면 2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함.

- **北나선 내년부터 여객선 관광도 가능(7/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작년부터 열차로 진행되고 있는 나선-블라디보스토크-훈춘 관광이 내년 부터는 여객선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최근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가 연재하는 ‘전문관광 분야에 힘을 넣고 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에서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계자는 “훈춘-블라디보스토크-나선 관광일정은 지난해부터 열차로 실현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해부터는 여객선으로도 운영된다”고 밝힘.

- **美 “영동한 곳에 식량지원해 세금낭비 못해”(7/7, 연합뉴스)**
 - 미국은 6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영동한 사람들에게 가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식량지원이든 다른 곳의 식량지원이든 과거에 그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에 가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아직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북단의 조사결과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과 투명성 문제 등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 **인도 대북지원 식량 남포항 도착(7/7, 연합뉴스)**
 - 인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긴급 구호용 식량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방송은 “인도 외교부가 5일 100만달러로 사들인 콩 900t과 밀 373t 등 총 1천273t의 긴급 대북지원 식량이 남포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힘.
 - 이어 “인도 외교부가 성명과 함께 제공한 관련 사진에 따르면 식량은 지난달 27일 하역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도가 이번에 지원한 식량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

● “北, 英재단에 식량요청 이메일 발송”(7/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경제무역정보센터의 황현철 소장이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지난주 영국의 톰슨 로이터재단에 보낸 사실을 6일 이 재단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방송은 이 재단의 공보국장을 인용해 “황 소장은 전자우편에서 원산과 사리원의 고아원 어린이 등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재단 대표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전함.
- 이어 “전자우편에서 황 소장은 북한이 6월말 현재 수십만 t의 식량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8월 말까지 쌀과 밀, 옥수수, 콩 등 종류의 상관없이 어떤 곡식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재단측에 호소했다”고 RFA는 밝힘.
- 또 방송은 “북한이 로이터재단 혹은 재단이 소개해 준 구호기관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기 원한다”며 “재단 대표단이 직접 방북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전자우편의 내용을 소개

● 북·중, 재생에너지 탐사·이용 협력 합의(7/7, 연합뉴스)

- 중국과 북한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탐사와 활용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태중수 비서는 6일 중국 공산당 저우용강(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 태중수 비서는 저우 상무위원에게 이번 방중의 주된 목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지열(地熱)자원의 개발과 관련, 중국의 경험을 배우려는데 있다고 강조
- 북한은 경제개발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저우 상무위원은 태중수에 중국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하는 능력을 공동 증진하려고 관련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힘.

● “거리에 중국산車 활보…일제 밀어내”(7/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고 일본제 중고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올해 1~5월 무역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t 이상 대형이 105.1%, 1천500~3천cc의 중소형이 54% 늘어났다고 전함.
- 북한의 한 무역업자는 RFA에 “80~90년대 일본과 무역거래가 있을 때는 일제 중고차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북중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중국차들이 많아졌다”고 전함.
-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평양에서 10만가구 살림집 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벌어져 운송수단이 필요했을 수 있다” 분석했으며, “2000년 이후 일제 자동차들이 강제폐기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함.

● 北 식량난에도 룰렉스시계 사들이는 이유(7/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만5천500 달러(한화 4천843만원) 어치의 스위스산 시계 229개와 시계부품 9개를 수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스위스 시계산업연합' 자료를 인용해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치수단 차원에서 자신의 생일(2·16)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등 명절 때마다 당과 군의 간부, 주민에게 시계를 선물해 줌.
-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스위스와 외교관계를 고려해 시계수입을 늘렸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북한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나진항의 2호 부두를 스위스에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한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과 관계에 신경 쓰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것임.

■ 기타 (대내 경제)

- 함경북도 경성애자공장, 애자성형공정의 CNC화로 제품의 질 개선 및 여러 나라 기업들과의 협조 강화 보도(7/4, 중통)
- 北, “유럽동맹의 對北 긴급식량협조 제공 결정” 소식 보도(7/8, 중통)
- 유럽동맹의 긴급 인도주의 식량협조는 北의 식량형편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호상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의의있는 계기로 될 것임.

다. 사회·문화

● 北 평남 삭창중, 中인사 이름 따 개명(7/7,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753호를 발표하고 북·중 우호 협력조약 체결 50주년(7·11)을 맞아 평안남도 성천군 삭창중학교를 라성교중학교로 개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전함.
- 중앙방송은 이번 개명이 “북·중친선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라성교 열사의 위훈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라성교는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전쟁 중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얼음물에 빠진 북한 소년을 구하고 숨졌다고 이 방송은 덧붙임.

● 北 평양국가마술단도 中 순회공연(7/7, 길림신문)

- 평양국가마술단이 지난달 2일부터 베이징과 광둥(廣東),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등에서 공연했으며 이달 22일과 23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연한다고 길림신문이 7일 보도
- 신문은 이 마술단이 하얼빈(哈爾濱)을 거쳐 오는 30일 단둥(丹東)을 끝으로 2개월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린다고 전함.

● 北 청년학생 평양서 김일성 회고무대(7/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청년학생들이 김일성 주석의 17주기(7·8)를 앞둔 6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회고무대 ‘수령님과 청년들’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전함.
- 리영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관계자, 오룡택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등이 참석해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등의 노래를 부르고 김 주석을 찬양하는 발언

● 北 적십자사 ‘긴급수해 기동대’ 가동(7/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적십자회가 올여름 홍수피해에 대비해 ‘긴급수해 기동대’를 가동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
- 북한 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RFA에 “긴급수해 기동대는 본부

에서 24시간 대기하고 홍수 발생 때 피해지역에 급파돼 보건, 식수위생, 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힘.

- 또 수해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의 각 시, 도에 ‘재난대비 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차원에서도 수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데서 의의 있는 과학영화들(바다광물질의 신비한 효과, 수압직기) 제작(7/4, 중통)
- 北, 2011년 세계청년역기선수권대회에서 우수성적 쟁취 보도(7/4, 중통·중방)

2 대외

가. 일반

● 시진핑 “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으로 해결해야”(7/4,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4일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시 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단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전함.
- 박 본부장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최근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에서 정세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함.
- 그는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관련국을 설득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강조

- 또 “우리는 북한과 접촉을 통해 북한이 평화를 필요로 하며,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큰 힘을 쓰고 강력한 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 일정은 경제발전과 민생 프로그램 향상과 관련있는 곳에 집중돼 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전함.

● **北양형섭 이끄는 친선대표단 곧 방중(7/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친선대표단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돌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곧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전함.

● **北·中, 우호협력조약 50주년 대표단 교환(7/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가 10일부터 13일까지 우호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961년 7월 11일 북·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을 맺었다. 북한 측에서는 김일성 전 수상이, 중국 측에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이 조약에 서명
-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뉴스는 전함.

● **北원유공업성-러시아 가스프롬 회담(7/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원유공업성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스프롬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원유, 가스부문협조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토의했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연합뉴스에 의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연결해 남한에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

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희영 원유공업상이, 러시아측에서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가스프롬 부사장이 각각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日, 北 장웅 IOC 위원 방일 특별허용”(7/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방일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연합뉴스에 6일 밝힘.
- 소식통들은 올림픽 관련 행사에는 ‘정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지만, 향후 장웅의 방일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이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아무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같은 예외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짐.

● 中후진타오 “북중친선 발전 추동”(7/7, 조선중앙통신)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조선(북)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중조 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함.
- 후 주석은 6일 중국 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우리는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고 추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후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중 친선을 수호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지향과 염원에 맞게 대를 이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

● 백악관 “北 핵프로그램 매우 심각하게 간주”(7/8,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 미국 백악관은 7일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군 수뇌부에 현금 350만달러와 보석 등을 뇌물로 건넸다는

-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함.
- WP는 이날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전병호 북한 노동당 비서가 칸 박사에게 보낸 서한도 함께 공개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은 정보사항이라고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이런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함.
 - 눌런드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6자회담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위해 남북대화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설명

나. 6자회담(북핵)

● 美·日, 북핵 ‘3단계 접근법’ 재확인(7/7, 교도통신)

- 미국과 일본은 6일 3단계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함.
- 스기야마 국장은 남북관계가 우선 개선돼야 하며 그 뒤 6자회담 재개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뒤따른다는데 캠벨 차관보와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 그는 또 캠벨 차관보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그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간의 회담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미국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달 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포럼(ARF) 기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

3 대남

● “3.4 디도스 공격 北소행”(7/5, AP통신)

- 북한 또는 북한의 동조자들이 올해 초 한국 정부와 은행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5일 미국의 컴퓨터보안업체 맥아피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맥아피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009년도 미국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켰던 대대적인 공격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맥아피 보고서는 한국의 20여개 이상의 사이트를 목표로 했던 올해 사이버 공격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이를 복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찰 목적의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은 전함.
-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위협분석 담당 부사장은 “이 공격이 정확히 누구의 소행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이 공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2009년과 2011년 공격에 사용된 코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똑같은 범인에 의해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95%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함.
- 또한 알페로비치 부사장은 “공격이 단기간 지속되고 정교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이 공격이 범죄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 정부 ‘6.25전쟁 납북피해’ 내달초 첫 결정(7/5, 연합뉴스)

- 6.25전쟁 기간에 발생한 납북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첫 결정이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5일 통일부에 따르면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위원회)는 다음 달 2일 60여 건의 납북피해 신고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납북피해 여부를 결정함.
- 이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신고를 받아온 이후 첫 결실을 보는 것임.

- 유엔관광기구총회에서 ‘北 재산권침해’ 지적 검토(7/8, 연합뉴스)
 -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은 8일 “북측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에 이어 최근 법적 처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 ‘금강산 재산권 협의’ 北에 제의(7/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8일 “7월13일 우리측 지역 또는 북측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당국도 가겠다고는 입장이어서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다”며 “협약이 성사되면 되는대로 민관협의단이 우리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성사가 안되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또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리할 경우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상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北 “금강산문제, 오면 협의하겠다”(7/10, 연합뉴스)
 -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의 ‘협의’ 제의에 대해 “협의하려면 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은 10일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8일 오후 현대아산을 통해 북측에 금강산 재산권과 관련한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이 ‘(남측 협의단이) 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전함.
 - 그러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동결·몰수한 남측 자산에 대한 ‘재산정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기타 (대남)

- 통일부 '위기대응과' 신설 및 기본업무 등을 시비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는 것이 통일부의 정체"라고 비난(7/4, 중통·노동신문·중방)
- 北, 7.4李大統領 실명 거론 南정부 비난 '평양시 軍民대회' 10만여 명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7/4, 중통·중·평방)
- 北 【조국통일연구원】, 7.6李大統領의 '對北정책 및 남북관계' 발언 비난 '백서' 발표(7/7, 중통)
 - △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적 망발, △ 악랄한 북남관계부정 망발, △ 추악한 반공화국 핵소동 망발, △ 극악한 체제대결 망발, △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과 전쟁망발 등 반민족·반통일적 정체를 알리기 위해 이 '망발백서'를 발표
- 【北 敎育위원회 대변인 담화(7.8)】 統一部의 '통일敎育敎재' 발간(천안함·연평도 도발, 3대세습 등 기술) 관련 "北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도발로, 敎育까지 동족대결 도구로 악용하는 역적패당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7/9, 중방)

7.11-7.17

7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평양 중앙동물원 현지지도(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날 보도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전함.
 - 이날 시찰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도 수행단에 포함

- **김정일·김정은, 장더장 중부총리 접견(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중국 부총리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장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친선대표단과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을 접견
 - 이날 접견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과 리영호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내각 부총리 강석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영일, 김양건,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등이 참석

- **北양형섭, 중우방귀 위원장 면담(7/12, 신화통신)**
 -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방중한 양형섭 북한 최고

-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
-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저우언라이 총리와 김일성 수상이 서명한 조약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법률적 기초가 됐다”며 “중국과 조선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함.
 - 한편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9일 중국에 도착한 양 부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다이빙귀(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하고 텐진시를 시찰

● **北김영남, 방북 장덕장 中부총리와 면담(7/12, APTN)**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방북한 장덕장(張德江) 부총리와 12일 면담한 것으로 확인
- APTN이 평양에서 촬영한 화면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장 부총리가 인사하는 모습과, 이후 장 부총리 일행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돌아보는 모습이 잡힘.

● **김정일 호위사령부 시찰…김정은 대동(7/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해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제963군부대는 김 위원장과 가족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로 알려져 있음.
- 이날 부대 시찰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동행했고, 호위사령관인 윤정린 대장, 김성덕 상장이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김정일·정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관람(7/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립연극단이 새로 제작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이날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부위원장 이외에도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 문

- 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참석
- 김 위원장은 공연관람을 마친 뒤 “우리의 혁명적인 연극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위력한 사상적 무기”라며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여 우리 인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

● **北김영남, 우동허 북중우호협회장과 담화(7/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우동허(武東和) 북중우호협회장을 비롯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및 북중우호협회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김정일 총비서 동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조선인민이 김일성 주석 동지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바란다”고 말함.

● **김정일·정은, 中예술단 공연 관람(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해 중국 간쑤성(甘肅)성 예술단의 무용극 ‘비단길 위의 꽃보라’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 이날 공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겸 당비서,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최룡해·태종수 당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참석

● **김정일·정은, 은하수극장 개관기념 음악회 관람(7/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리모델링을 마친 은하수극장에서 은하수관현악단의 개관기념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이날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

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당과 군의 고위인사들이 참석

김정일동향

- 김정일, 중앙동물원 현지지도(7/11, 중통·중방)
- 김정일, 7.12 '중국 친선대표단과 중국인민 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 접견 및 만찬(7/13, 중통·중·평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지휘부 시찰(7/13, 중통·중·평방)
- 김정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관람(7/14, 중통)
- 김정일, 7.15 중국 訪北예술단 공연(김숙성 가무극원 무용극 '비단길우의 꽃보라' 관람)(7/16, 중통·중·평방)

기타 (대내 정치)

- 現정세에서 “우리(北)의 보복성전은 수령결사옹위전, 제도보위전”이라며 “△수뇌부결사옹위, △군력강화, △일심단결·규율확립·계급의식무장 및 대고조진군 박차” 등 쏘민 선동(7/12, 중방·노동신문)
- “역사는 계승되어야 빛난다”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혁명선열들의 투철한 신념을 곳곳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金父子의 唯一思想·혁명위업계승’(7/15, 중방·노동신문·중통)
- 北 평양시 선거위원회(이용철 평양시 인민위원회 국장),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7.24) 성과적 진행을 위한 선거 선전사업에서 성과(7/17, 중방)

나. 경제

● **美 대북식량지원 움직임 ‘주춤’(7/11, 연합뉴스)**

- 빠른 속도를 보일 것 같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이 주춤한 상태라며 연합뉴스가 전함.
- 5월 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평가팀이 북한을 직접 방문, 현지 실태 조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팀의 방북 결과를 검토중”이라는 원칙적 언급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 워싱턴 소식통은 10일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식량사정이 당장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 사정과 지원식량 전용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 내에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 “현재 미 정부 내에서 식량지원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함.

● 통일부 “대북식량지원, 국제사회 지원과 별개”(7/11, 연합뉴스)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별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 3주년과 관련해 명복을 비는 한편 “북한은 우리 사업자의 재산 몰수·동결, 재산정리 등 일방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 관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신변안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함.

● 北하나전자, 평양에 레스토랑·사우나 개장(7/12, 연합뉴스)

- ‘아리랑 DVD’로 유명한 북한의 조선하나전자합영회사(하나전자)가 최근 평양 시내에 레스토랑과 대규모 레저시설을 건립, 운영을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관련 투자회사인 피닉스커머셜벤처스(Phoenix Commercial Ventures Ltd)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전자의 본부가 평양 통일거리 시장 근처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본부 내에 레스토랑과 수영장, 사우나, 미용실, 바, 체육관 등의 레저시설도 문을 열었다”고 밝힘.

● “北, 평양 10만가구 건설자금 주민에게 걷어”(7/12,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평양시 10만 가구 주택건설 자금을 주민에게 걷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RFA는 만수대지구를 비롯한 평양시 주택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 있다며 북한 당국이 지원금을 각 기관, 인민반, 학생에게 부과했다고 전함.
- 평양시내 한 가정은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내는 돈이 매달 1만원을 넘는다고 방송에 전함.
- RFA는 “북한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시작한 10만 가구 공사를 주민에게 떠맡겼다”고 지적

● **中, 화룡-남평 철도 10월 완공(7/12,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과 남평(南坪) 통상구를 잇는 철도가 오는 10월 완공된다고 연변일보가 12일 보도
- 남평은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이 철도가 개통되면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의 중국 반입이 늘고 대북 교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봄.
- 중국 통화(通化)강철집단 등 중국의 3개 업체는 2005년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 광산 50년 개발권을 확보, 해마다 120만t의 철광을 수입하고 있으며 화룡-남평 철도가 개통돼 접근성이 개선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대북 경제협력 강화와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중국은 장기적으로 화룡-남평-무산 철도를 북한으로부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

● **北 광산·룽매도서 간척사업 한창(7/1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평안북도 광산과 황해남도 룽매도 등에서 총 5.8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건설하는 등 간척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12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평안북도 광산간척지 2단계 건설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수십만㎡의 토량이 처리되고 6만㎡의 돌입히기가 진행됐으며 3천 800여m의 방조제가 뺏어나갔다”고 밝힘.
- 또 룽매도간척지 건설장에서는 건설 시작 이후 반년 남짓한 기간에 7만6천여㎡의 돌입히기를 통해 바다 위에 2천여m의 방조제를 세웠다고 소개

● **日의원들, 대북식량지원 금지 美에 촉구(7/12, 교도통신)**

- 미국을 방문중인 일본 의원들은 12일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정권을 강화

시킬뿐이라면서 식량지원을 하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일본 의회 내의 납치문제와 관련된 초당적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대표는 이날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과거 행태를 감안해, 쉽게 식량지원을 하지 말라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말함.

● **北, 과학연구기관에도 독립채산제 압박(7/15, 연합뉴스)**

-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자체적인 생산수단이 거의 없는 응용과학연구기관도 독립채산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가 15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2011.2호)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응용과학연구기관들을 점차적으로 반(半)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로 넘길 데 대한 사상을 제시했다”고 밝힘.
-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주로 공장과 기업소 같은 생산기관이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경영관리 방법으로, ‘해당 기관이 알아서 생산해 벌어들여 국가의 계획도 완수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中 훈춘, 올 상반기 대북 교역 급증(7/15, 연변일보)**

- 훈춘의 대북 통상구(세관)인 권하(圈河)통상구의 올해 1-6월 수출입 화물량이 9만2천255t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4% 증가했다고 연변일보가 15일 보도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원정리와 마주한 권하통상구의 대북 교역량이 급증한 것은 라선특구 공동개발과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수, 대북 관광 활성화 등 북·중간 경제 교류가 활기를 띠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로 진출할 길이 열리자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 권하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에 착수했으며 공사에 쓰일 물자와 인력이 대거 북한에 들어감.

- **스웨덴, 北에 294만달러 의료지원(7/16,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 정부가 올해 유럽 구호단체들을 통해 294만달러 상당의 대북 의료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요아킴 베이지모 대변인은 이같은 대북 의료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VOA측에 밝힘.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15일 현재 총 4천500만달러로, 스웨덴은 개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인 736만달러(16%)를 기부

- **“북 18개은행 운영…압록강銀 자산 최대”(7/16,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는 18개 은행이 영업 중이며 그중 미국의 제재대상인 압록강개발은행이 최대 규모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 VOA는 전세계 은행정보 제공 전문기관인 ‘뱅크스 앨머네’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서는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해 압록강개발은행, 동방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단천상업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함.

- **“굶주린 北군인들 탈영·식량도독질 잇따라”(7/17, 오늘의북한소식)**
 - 17일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최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11호)에 따르면 군부대 식량 부족으로 신병훈련소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거나 탈영병이 강도짓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에 있는 4·25훈련소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풀뿌리와 산나물을 섞어 ‘풀밥’을 지어먹던 훈련병 일부가 탈영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 탈영사례가 증가하자 당국이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탈영병에 대해서는 “복귀할 경우 기회를 주겠다” “복귀를 거부하는 탈영병은 탄광 등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함.
 - 북무 중인 군인이 농가에서 감자 등을 훔쳐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군부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군인을 경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다. 사회문화

- “北인구 2050년까지 10% ↑ …약 2천700만명”(7/12, 미국의소리(VOA))
 - 미국 인구통계국이 최근 개정한 국제데이터베이스(IDB)에서 북한의 총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약 10% 늘어난 2천696만9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
 - 인구통계국은 올해 북한의 인구를 2천445만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올해 0.5%에서 2024년 0.4%, 2028년 0.3% 등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46년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올해 69세에서 2050년에는 78세로 늘어날 전망

- “北 종교신자 처형·투옥 여전…개선기미 없어”(7/12, 미국의소리(VOA))
 - 영국 인권단체인 ‘국제소수자권리그룹’(MRG)은 북한이 헌법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자들을 처형·투옥하는 등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힘.
 -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MRG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8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지하교인 23명이 체포돼 3명이 처형당하는 등 북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포정치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함.
 - MRG는 또 북한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당국이 통제하는 소수의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함.
 - 이어 MRG는 북한 당국이 북한 내에 기독교신자 1만2천명, 불교신자 1만명, 카톨릭신자 800명이 있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탄압을 피해 몰래 종교 활동을 하는 ‘지하신자’를 포함하면 실제 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

- 北황강댐 방류한듯..군남댐 수문 모두 열어(7/13, 연합뉴스)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13일 오후 8시25분께 필승교 수위가 경제수위 5m를 훌쩍 넘어 6m에 가까워 지자 군남홍수조절댐의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초당 2천150t을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남댐의 한 관계자는 “수위 상승 속도로 보아 북한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북측이 발전을 위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으로부터 방류 사실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라고 말함.

● **WFP “북한인구 20~34% 영양결핍”(7/13,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 기아현황 지도’에서 북한을 영양결핍 인구가 전체의 20~34%를 차지하는 국가로 분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
- 북한은 올해 몽골, 인도와 함께 4단계로 분류됐으며 최하위 5단계 국가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가 대부분 포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피바다 가극단 창립(1971.7.17) 40돌 기념보고회, 7.16 김기남(黨비서), 안동춘(문화상), 양창남(가극단 총장) 등 참가下 평양대극장에서 진행(7/17, 중방)

2 대외

가. 일반

● **中부총리, ‘北과 전면적 협력확대’ 강조(7/11, 연합뉴스)**

- 중국 친선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북-중 간 고위급 상호방문이 빈번히 이뤄졌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이 진행됐다면서 양측 사이에 국제 현안과 지역 문제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어졌다고 강조
- 또 장 부총리는 전통적 우의를 발전시키고 양측 지도부의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함.
- 장 부총리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중국과 북한이 직면한 두 가지공동과제라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점진적인 무역확대, 투자와

협력 촉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이어 최영림 총리는 북한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양측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
- 중국 친선대표단은 장 부총리 외에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초하경 국무원 부비서장,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양옌이(楊燕怡)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으로 구성

● **北中우호조약 50주년 행사 양국서 잇따라(7/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11일)을 맞아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은 10일 밤 지재룡 대사의 주관으로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연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연회에는 중국의 외교 분야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과 9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같은 날 평양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대사가 마련한 연회가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는 북한 측에서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부총리, 김영일 당 국제부장, 박의춘 외무상 등이 대거 초대됐고, 중국 측에서는 북한을 방문 중인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등이 참석
-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전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서명으로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성격

● **후진타오, 양형섭 등 北대표단 접견(7/11, 중국중앙TV)**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일인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
- 후 주석은 “과거 50년 동안 중국과 조선은 우호협력원조조약의 정신 아래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왔다”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이어 전통을 바탕으로 협력 정신을 강화하자며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지속하고 전략 소통을 심화하자고 덧붙임.

● “北이 의장국이라니”..캐나다, 군축회의 보이콧(7/11, CBC방송)

-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CD)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에 항의해 캐나다가 북한의 의장국으로 있는 기간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CBC방송이 보도
- 존 베어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11일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그는 북한의 의장국 취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솔직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의장국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9일까지 군축회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은데 대해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군축 문제는 기존의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 등을 통해 해결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장국은 60개국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이번은 그들(북한)의 차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의장국을 맡은데 따른 특별한 피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함.
- 그는 “군축회의는 만장일치에 기반한 회의체로, 우리와 문제가 있는 국가가 단지 의장국이 된다는 이유로 어떤 것이 결정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지적
-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이 회의체와 관련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이 회의체를 통해 큰 협상을 하지 않기로 우리는 선택했고, 군축회의는 낮은 수준의 중요하지 않은 회의체”라고 이유를 설명

● 中외교부, 홈페이지에 北김정은 사진 노출(7/1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부처 홈페이지에 북한의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찍힌 사진을 게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외교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을 위해 방북한 장덕장(張德江) 중국 부총리를 12일 접견하는 사진을 13일 홈페이지에 실었으며, 이 사진에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모습도 포함됨.

- 중국 방송·신문 매체들은 그동안 김정은 사진과 영상을 종종 보도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사진을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
- 문제의 사진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측이 이번에 방중한 장 부총리 통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 등의 선물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여기에 김 위원장 부자와 더불어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모습이 찍혀있다. 중국측 인사로는 장 부총리와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 등의 모습이 나와 있음.

● **방북 장더장 中부총리 일행 귀국(7/13, 조선중앙통신)**

- 북중 우호조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최근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친선대표단이 13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장 부총리 일행이 이날 귀국에 앞서 평안남도 대안군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찾아 “조중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최신 설비들을 갖춘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깊은 관심 속에 돌아봤다”고 전함.

● **美 “언론자유·정보접근 확대 北허용 기대”(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서방언론에 문호를 일부 개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좀 더 많은 정보 접근 및 언론의 자유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P통신의 평양 지국 개설 합의와 로이터통신의 북한 영상뉴스 공급 합의 발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中 “북중우호조약, 지역안정에 적극적 역할”(7/1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 14일 “중조(중북) 우호협력원조조약이 중국과 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중앙(CC)TV4채널이 최근 조중

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차례 자동연장됐고, 다시 202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도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함.

- 그는 이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것이 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라고 강조

● 北리용남 “시리아 정부 안보 조치 도울 것”(7/15, 사나(SANA))

- 리용남 북한 무역상이 시리아 정부가 서방의 음모에 맞서 안보를 지키려고 취하는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짐.
- 시리아 관영통신 사나(SANA)에 따르면 리 무역상은 지난 14일 북한과 시리아가 무역, 정보, 경제, 과학 분야의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국민과 군, 정부가 함께 음모에 맞서는 것을 보았다”며 “(북한은) 시리아 정부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과 시리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군수물자 거래 및 핵 협력 의혹을 사고 있으며, 사나는 이날 양국이 무역 등 네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의정서에도 서명했다고 전했다. 협정 조인이 이뤄진 장소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기타 (대외 일반)

- 美軍주도 ‘韓美 연합과학화훈련’(6.27~7.7) 실시 관련 “남조선 괴뢰들을 우리(北)와의 대결에 더욱 부추기는 계획적·고의적 反北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7/12, 중통·노동신문·평방)
- 中공산당창건 90돌 경축행사들과 최근 러시아 정부의 戰力무력강화 움직임 및 이란 핵문제 관련 이란-서방국가들間 異見 傳言(7/12, 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중방)
- 中인민대외우호협회·中朝우호협회, 7.11 ‘中-北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돌’ 관련 베이징에서 연회 마련(7/13, 중통)
- 김영남, 7.12 러시아 대통령에게 타타르스탄공화국 여객선침몰사고 관련 위문전문(7/12, 중통·중방)
- 김영남, 7.12 중국 친선대표단과 담화(7/12, 중통·평방)
- 최태복·김영일(黨비서들), 7.13 작별 방문한 駐北 쿠바대사와 曺曁 담화(7/13, 중통)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7.14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시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7/14, 중통)
- 박의춘 외무상, 7.14 駐北 쿠바 및 시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7/14, 중통)
- 김영남, 7.15 ‘중국인민 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단장 :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과 담화(7/15,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17일 방한(7/13, 연합뉴스)

-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소식통은 일본 6자회담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을 방문, 18일에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함.
-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과 관련한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은 말함.
- 또한 스기야마 대표는 위성락 대표에게 일본은 한미일 3국이 견지하고 있는 3단계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3 대남

● 남북적십자, 국제회의서 비공식 대화(7/11, 연합뉴스)

- 남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지난 5~7일 중국에서 열린 적십자 관련 국제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11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회의에 직접 참석한 한적 관계자는 이날 “지난 5~7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어얼뒤스(鄂爾多斯)시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사 리더십 회의’에서 김용현 한적 사무총장과 백영호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 부위원장이 티타임 등을 이용해 대화했다”고 밝힘.
-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지만 남북 적십자 차원의 교류와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건네자 백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국제회의에서 이런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제의하라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북측 관계자가 남측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받아들일겠다

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와 관련, “북측 관계자가 받아들여졌다는 말은커녕 검토해보겠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일축

● **남북, 금강산 재산권 13일 협의키로(7/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의 ‘협의’ 제의에 “13일 금강산에서 협의하자”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연합뉴스에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이날 오후 3시 금강산 현지에 있는 현대아산 사업소를 통해 구두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전함.
- 이어 통일부는 “이번 협의기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업체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강산 재산권’ 민관합동협의단 방북(7/13, 연합뉴스)**

-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단이 13일 금강산 지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협의단은 동해선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금강산지구로 들어감.

● **北 ‘금강산 협의’ 보도…추가협의 시사(7/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남북이 전날 진행한 금강산지구 남측 재산권에 대한 협의내용을 전하면서 추가 협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
- 중앙통신은 금강산 협의와 관련, “남측 기업가들이 돌아가 더 연구해 입장이 서면 다시 만나 협의를 가질 것이며 만일 남측이 7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미 선포한 대로 남측 부동산들을 법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남측 당국 관계자들은 돌아가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경로로 다음번 협의와 관련한 입장을 알려오겠다고 했다”고 덧붙임.

- **경기도·인천시, 올들어 세번째 방역물품 北 전달(7/13, 연합뉴스)**
 - 경기도와 인천시는 13일 4억1천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번 지원은 올들어 지난 5월23일과 지난 1일에 이어 세 번째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5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기 유충 구제약품과 모기향 등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전달

- **北 장웅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바람직”(7/13, 연합뉴스)**
 - 북한 체육계 핵심 인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안에 대해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참석차 일본에 입국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13일 오전 나리타(成田)공항에서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남북 공동 개최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답변

- **“평창 동계올림픽 北 발언은 ‘간접 경고’”(7/14, 더타임스)**
 -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희망하는 북한의 말들 속에는 올림픽을 훼방 놓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4일 풀이
 - 더 타임스는 이날 ‘북한, 동계올림픽 위협(Pyongyang threatens to target Winter Olympics)’이라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일본 발언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룸.
 - 이 신문은 “장 위원이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것이 개선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신문은 이어 “‘영향(influence)’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1988년 서울올림픽 방문객에게 겁을 주려고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1987년 한국 민항기 폭파 사건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

● **개성공단 임금협상..5년연속 5% 인상 가능성(7/15, 연합뉴스)**

-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최근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임금협상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되었으며, 올해 협상에서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월 63.814달러 수준이 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발족한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는 오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

● **北 “통일세 도입은 북침 체제통일 목적”(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책동’ 제목의 논평 기사를 인용,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주장
- 논평은 “얼마 전 괴뢰 통일부 현인택은 통일세 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세금보다는 기금위주로 마련하겠다고 떠벌렸다”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미리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통일세 제안은 철두철미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말함.
- 이어 “통일세 제안이 각계 배척을 받자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남북협력기금”이라며 “이명박 일당은 민간단체에 주던 보잘 것 없는 자금마저 잘라버리거나 삭감하고 반통일 대결정책을 위해 기금을 탕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대결기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 **기타 (대남)**

- 北, 7.13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정리 위한 남북협상’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하며 “南당국 관계자가 민간기업가들의 의사표명을 억누르며 부당한 입장을 고집” 주장 및 “7월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남측부동산을 법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7/14, 중통)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75호’】 남측의 ‘북한인권백서 2011’ 발간은 “우리(北) 체제와 존엄에 대한 정치적 도발”로 “反北대결 책동에 단호한 징벌” 위협(7/15, 중통·평방)
- 통일부장관의 ‘통일세’ 관련 발언(기금위주로 마련)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대결기금, 분열기금”이라고 비난(7/16, 중통·노동신문·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18-7.24

7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박의춘, ARF 앞두고 몽골 방문(7/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전함.
- 이 방송은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17일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박 외무상은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 ‘생일상’도 김정일식 충성 유도 통치수단(7/1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위를 특징짓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덕정치’로 이 용어는 1993년 1월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처음 제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인덕정치를 통해 김 위원장은 간부와 주민으로부터 더 확고한 충성을 확약받고, 간부와 주민은 김 위원장이 펼치는 인덕정치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1인 독재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인데, 김 위원장이 행하는 인덕정치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주요 간부에게 선물을 주는 이른바 ‘선물정치’임.
- 선물정치가 김 위원장이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덕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면 ‘생일상’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 인덕정치임.
-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100세를 맞은 노인에게 대통령과 여왕 또는 총리가 축하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100세를 맞은 주민에게 보내는 생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서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

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보내는 생일상에 포함된 음식과 옷 등은 일반 주민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권혁봉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김일성 훈장’(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권혁봉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게 북한 최고 영예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중앙통신은 “그는 문학예술분야에서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시대적 명작이 훌륭히 창조되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인민군군인,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해 주체혁명위업 완성으로 불리일으키는데 공헌했다”고 밝힘.
 - 권 부부장은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장과 내각의 문화예술부 부부장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권 부부장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선전선동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 **北-몽골 외교장관회담 개최(7/19, 조선중앙통신)**
 - 몽골을 방문 중인 박의춘 외무상이 18일 고편자브 잔단샤타르 몽골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北매체들 지방선거 분위기 띄우기 분주(7/20, 조선신보)**
 - 20일 오전에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비롯해 대남선전 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의 거의 모든 매체가 6건의 관련 보도를 쏟아내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실감케 함.
 - 조선신보는 이날 “선거 참가에 대한 선전물이 시내 곳곳에 나붙고 중요신문에 선거 준비와 참가에 대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맞춰 방송선전 차량이 돌아다니며 선전을 벌이고, TV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선거 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일·정은, 北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7/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공연 관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이 함께 함.

- **김정일·정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7/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가 수행했다고 밝힘.

- **北도 아세안에 주재대사 파견 결정(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주재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아세안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아세안 주재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사이의 호상신뢰와 호혜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남북외교장관 ARF서 접촉..후속대화 협의(7/23, 연합뉴스)**
 - 남과 북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3일 외교장관 간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3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도중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현지시각) 회의시작 전 대기장소에

서 만나 22일 있었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짐.

-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 비핵화 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후속 대화의 방향과 수순을 놓고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으며, 김성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낮 국제회의장(BICC)에서 오찬을 겸한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향을 논의
- 앞서 김 장관과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회동해 전날 개최된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ARF 회의가 열리는 도중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북·중 고위급 회동을 했으며, 리 부상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도 만남.

● **北 “중, 러대표와 회동”…‘南접촉’ 보도안해(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러시아 대표와 회동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통신은 “조선대표단 단장인 박 외무상이 22일 중국대표단 단장인 양결지(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양제츠) 외교부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
- 또 여기에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 리정를 인도네시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장조리, 중국특명전권대사,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 등이 참가했다고 전함.
- 그러나 이번 ARF회의에서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부상이 공식 회동한 사실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외무상이 접촉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박의춘 “北 비핵화 추진은 일관된 입장”(7/24, 연합뉴스)**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전날 ARF 연설을 통해 “정세의 완화나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나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은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고 대담하게 근원적인 문제에 손을 대는 용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박 외무상은 또 “핵문제나 주기적으로 폭발점에 이르는 정세와 같이 긴장 격화가 지속되고 있는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 사이의 적대 관계가 놓여 있다”고 문제의 원인을 미국에 돌림.

● 北 지방인민회의 선거…김정일·정은 투표(7/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대동하고 제 264호구 제150호분구 선거장에서 평양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평양 곡산공장 지배인 박형렬과 용성구역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용성매추리공장 지배인 강철호에게 투표

● 北 지방선거 완료…“투표율 99.97%”(7/24, 조선중앙통신)

- 24일 북한의 각급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2만8천여명을 뽑는 대의원 선거가 투표율 99.97%(오후 6시 기준)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선거는 3시간 만인 정오에 84.66%, 오후 2시 97.58%의 투표율을 나타내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오후 6시에는 선거인 중 99.97%가 투표를 마침.
- 북한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남한의 각급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주권기관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2만8천명 가량을 뽑음.

■ 김정일동향

- 김정일,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새로 건설된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현지지도 (7/22, 중방·중통)
- 김정일, 7.24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 방문(평양시 제264호구 제150호분구 선거장) 및 투표행사(7/24, 중·평방·중통)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7.19 권혁봉(黨 부부장)에게 김일성훈장 수여(7/19, 중통)
- 北 노동신문 대표단(‘김원석’ 부주필), 7.19 ‘딩 테 후잉’ 베트남 黨비서 겸 선전교육부장과 담화 (7/20, 중통)
- 北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사업’, 7.20까지 완료(7/21, 중통)
- 최영림 총리, 7.22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정형 현지 요해(7/22, 중통)
-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7.24)를 앞두고 △정치사상적 통일의 담보, △동등한 자격과 권리로 자유롭게 참가, △참된 복무자를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 등 ‘北선거제도 우월성’ 連日 선전(7/23, 중통·노동신문)

나. 경제

● 국제적십자사 “수해지원 北요청 받은바 없어”(7/1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는 18일 “북한으로부터 폭우 피해 규모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IFRC는 “북한이 조선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북한이 직접 수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듯 하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유니세프, 北수해 실사단 파견 준비”(7/20,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이 수해지원을 요청하면 수해지역에 파견할 실사단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UNICEF는 방송에 “북한이 아직 수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나가지 않았고 긴급 구호품도 분배하지 않았다”며 “지원을 요청해온다면 즉각적인 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힘.
- UNICEF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비해 비타민보충제·방수포·텐트·식수정화제 등 주민 10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 구호품을 북한 전역에 비치하고 있고, 현장 조사단은 이 기구의 평양사무소 국제요원으로 구성된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집중호우로 탄광들 큰 피해”(7/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12~15일 내린 집중호우로 각지 탄광에서 큰 피해를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중앙통신은 “서부지구의 30여개 탄광들에서 수십개의 갱과 150여개의 채탄장이 침수됐고 40여 개소의 저탄장들에서 수십만의 석탄이 유실됐다”고 밝힘.
- 이어 “순천과 덕천, 북창 일대에서는 적지 않은 다리들이 끊어지고 철길로반(노반)들이 산사태로 파괴돼 교통이 마비됨으로써 석탄수송에 난관이 조성됐다”며 “함남, 천내지구의 탄광들에서도 많은 갱들과 채탄장들이 물에 잠겨 생산이 중단됐으며 전력사정으로 양수설비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WFP, 北수해지역 답사…“광범위한 피해 목격”(7/21,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수해지역인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을 최근 방문, 피해실태를 살폈다고 북한 관련 외신들이 21일 보도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WFP가 2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글을 인용해 “실사단은 원산과 함흥에서 광범위한 침수와 농경지 피해를 목격했고 강둑이 터져 많은 주민이 집을 버리고 피신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고 전함.
- 이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WFP는 북한의 홍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최대 37만5천명의 이재민에게 120일 동안 식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임.

● “北, 유엔기구에 ‘경제교육’ 요청”(7/21,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유엔기구에 경제 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환경담당관은 21일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의 평화나눔정책포럼에서 “북한이 최근 방콕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경제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고 말함.
- 남 담당관에 따르면 UNESCAP은 북한에서 에너지·환경과 수자원·교통·

지역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은 이중 지역협력사업의 하나로 경제교육을 요청

- **“호주, 유엔 대북식량 지원에 524만달러 지원”(7/22, 미국의소리(VOA))**
 - 호주가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 지원사업에 524만 달러(55억3천만원)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방송은 WFP의 최근 자금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호주가 기부한 자금은 WFP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북사업에 필요로 하는 예산 2억달러(2천100억원)의 2.6% 규모로 올해 개별국가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
 - 방송은 “지금까지 호주 외에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등 12개국이 WFP에 기부했지만 WFP가 확보한 자금은 필요한 예산의 21%인 4천485만달러(47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함.

- **“유엔개발계획, 北에 풍력발전 지원”(7/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개발계획(UNDP)은 올해 북한에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RFA는 “UNDP는 북한이 풍력에너지 장비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하고 풍력에너지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함.
 - UNDP 측은 방송에 “북한의 에너지 기술자 및 전문가를 중국, 필리핀, 인도 등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농촌 에너지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밝힘.

- **“북한에 희토류 2천만t 매장”(7/23, 조선신보)**
 -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자원 희토류가 북한에 2천만t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 또한 희토류 최대 매장지역은 평안북도지만 강원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량강도 등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황해북도에도 매장돼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전함.

● 北-中, 청진항도 공동개발 본격화(7/24,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에 이어 최근에는 나선특구와 청진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등 청진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4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공병대를 투입해 훈춘(琿春)~나선간 도로에서 뺏어나와 청진으로 향하는 약 1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청진항을 보수·확장하는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 中화룡-北혜산·평양 관광코스 신설(7/24, 길림신문)

- 북한과 중국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북한 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과 평양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길림신문이 2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화룡시는 북한 양강도와 현재 운영 중인 화룡-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13일 합의

● 北-中, 라선 농업시범구 조성 본격화(7/24, 연변일보)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조성키로 한 북한 라선특구 내 농업시범구 공사가 본격화됐다고 연변일보가 24일 보도
- 신문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북한 라선시와 공동으로 라선특구 내에 건설키로 합의한 ‘중조(中朝) 합작 농업 시범구’ 사업이 최근 비닐하우스 설치와 우물파기 등 기초 공사가 본격화되는 등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함.
- 라선 농업시범구 조성에는 최소 123만2천 위안(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연변일보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라선경제무역지대’(6.9 朝-中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 개최)는 “中-北 경제와 교통 운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친선적 경제무역지대, 東北亞와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 선전(7/20, 중통·노동신문)
- 北, ‘상표법’의 제1장(상표법의 기본)과 제5장(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수정 보충(7/20, 중통)
 - 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에 늘어나는데 맞게 상품의 질을 높이고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됨.

다. 군사

- **“개도국에 팔린 탄도미사일 40%가 북한산”(7/21, 미국의소리(VOA))**
 - 지난 20년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미사일의 40% 정도가 북한산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미국 비확산관련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
 - 미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국제대학원의 대량살상무기·비확산연구센터가 최근 발행한 ‘비확산지(The Nonproliferation Review)’ 7월호에 실린 ‘탄도궤적: 북한 탄도미사일 시장의 진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탄도미사일 약 1천 200기 가운데 510기(42.5%) 가량이 북한산임.
 - 보고서를 작성한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은 VOA에 “북한이 중동에 완성된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출하던 전성기는 끝났다”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중동에서 급격한 무기증강과 미사일 공급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과 경쟁하려는 중동 국가들에 우라늄 공급 및 변환기술, 농축장비 등을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연평도 포격前 동창리서 미사일엔진 시험”(7/24, 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제2미사일지에서 장거리미사일(ICBM급) 로켓엔진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고위 소식통은 24일 “북한은 작년 10월 말께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미사일 로켓 엔진 성능시험을 한 차례 실시했다”면서 “미국의 군사위성이 포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험이 이뤄져 의도적으로 미사일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이어 소식통은 “지난 2001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대(높이 30여m)를 지지하는 발사 타워 공사는 완료됐지만 전체 기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장마철 수해대책 만전” 캠페인(7/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8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자면 장마철에도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자”고 독려
- 중앙TV는 특히 “장마철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문은 농업”이라며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배수양수장을 비롯한 고인물빼기 시설들을 언제든지 만가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어 “물길과 저수지들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우며 배수로와 물도랑을 잘 쳐서 토지와 농작물, 농업생산 시설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수지 수문조절과 배수양수장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절대 중단하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

● “英, 북한내 영어교육 3개대서 6개대로 확대”(7/19,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는 북한에 제공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양국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전함.
- 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하웰 영국 외무차관은 지난 13일 의회에서 “영국문화원이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 소재 3개 대학 교직원 200명에게 제공해온 영어교육을 연내 6개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웰 차관은 ‘북한에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의 가치와 영향력’을 묻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영국인 계약직 강사 4명이 평양에 파견돼 김일성대, 평양외국어대, 김형직사범대 교원에게 영어를 교육하고 교육커리큘럼 개발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

● 이번 장마기간 北강수량 평년의 3배 넘어(7/1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기상청은 19일 올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북한 지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3배를 넘는다고 밝힘.

-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이달 18일 오전 3시까지 황해남도 해주의 강수량이 682.0mm로 평년 185.9mm의 3.6배나 됐고 개성(658.4mm), 신계(511.4mm)도 평년보다 배 이상 많았음.

● **WHO “북한내 원격화상진료 성과…확대 계획”(7/19, 미국의소리(VOA); 조선신보)**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 지원한 원격화상진료 서비스가 초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해 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WH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8년 평양의 김만유병원을 거점으로 2009년 말까지 9개 도의 인민병원이 케이블로 연결됐다”며 “이 같은 연결로 지방의 환자들이 김만유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줄었고, 2010년 말까지 화상상담 441건과 화상교육 164건이 이뤄졌다”고 밝힘.
-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작년 3월 “먼거리의료(원격진료) 봉사체계가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다”며 “(북한) 보건성은 체신성과 협력해 2012년까지 먼거리의료 봉사망을 각 시·군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함.

● **“北, 구금시설 182곳에 7천600명 수용”(7/20,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NKDB)는 북한에 최소 182곳의 구금시설에 최대 7천600여 명이 수용돼있다고 20일 밝힘.
- NKDB는 이날 탈북자 1만3천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운영체제와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 2권을 발간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매끼 한 그릇도 안 되는 옥수수죽과 소금국으로 연명할 정도로 생존권에 대한 위협도 매우 심각함.

● **“탈북자 귀환에 北서 지하종교활동 늘어”(7/20, 연합뉴스)**

-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강제복송 등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서 북한에서 비밀스런 종교활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

뉴스가 전함.

- 도희운 (사)행복한통일로 대표는 20일 사회·종교 종합일간지인 ‘천지일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에서 발표를 통해 “1998년 이후 식량난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종교를 접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강제송환되면서 북한내 비공식 종교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

2 대외

가. 일반

- **英의회, 북한인권 조사 촉구 동의안 제출(7/20, 미국의소리(VOA))**
 - 영국 의회에서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유엔이 북한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라는 이름의 ‘얼리데이모션(Early Day Motion. EDMs) 2079’를 제출
 - 브루스 의원은 “공개처형과 영아살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고문,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 종교탄압, 성폭력, 강제복송된 탈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영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 **아세안 연례장관회의 내일 印尼 발리서 공식개막(7/20, 연합뉴스)**
 - 아세안을 주축으로 한 연례 외교장관회의가 21일부터 2박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개최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양자·다자접촉 가능성이 제기

-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회담 형태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비공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북측의 최근 태도로 볼 때 성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정부는 ARF 회의결과로 나올 의장성명에 ▲남북대화를 필수단계로 해서 6자회담의 사전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세계YWCA, 北 어린이·여성인권 지원 결의(7/21, 연합뉴스)**

- 한국YWCA(회장 강교자)가 제안한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 노력 촉구 결의문’이 지난 1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27차 세계YWCA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결의문은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 탈북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한다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한반도 DMZ 방문단을 조직한다 등 7개 조치를 담고 있음.

● **“北 원색적 대외비난 표현 ‘세계최악’”(7/22,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 북한이 세계 최악 수준의 원색적인 대외비난 표현을 최근 늘리면서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노력이 중요해졌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2일 보도
- 신문은 최근 북한이 훈련용으로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한국의 일부 전방군 부대와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 성전으로 대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코믹하게도 보이는 현란한 언어를 잇따라 쓰고 있다고 전함.
- 한국 내 한 당국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사용한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련의 발언들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응을 보였으나, 다만 북한이 때로는 자신들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발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北 김계관, 美연구기관 초청으로 곧 방미”(7/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복수의 미국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추진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민간연구기관 주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김 제1부상에게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고 전함.
 - RFA는 “김 제1부상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주로 만날 예정이지만 미국 외교당국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 결정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분배감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

나. 6자회담(북핵)

- 남북 비핵화회담..“6자재개 노력 합의”(7/22, 연합뉴스)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위 본부장과 리 부상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두 시간 동안 회담
 - 리 부상은 회담 직후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리에 와서 남측 단장(위성락 본부장)을 만났다”면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힘.
 - 위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였다”면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지속해 6자회담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함.
 - 남북한 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대화 → 북미대화 →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이 강한 탄력을 받으며 교착국면에 놓인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접촉 계기로 ‘북미대화’도 탄력(7/23, 연합뉴스)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중요한 행보”라고 환영하면서 한국, 일본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
- 미국은 회담 직후 한국 정부로부터 주요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전해들었으며,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김성환 외교장관과의 회담 및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추가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
- 중국과는 이미 남북회담이 열리기 직전 발리에서 열린 클린턴 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 간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
- 남북 비핵화 회담이 한 두 차례 더 있는 뒤 본격적인 북미대화가 이뤄질지, 아니면 김 부상의 방미를 계기로 곧바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은 북미 간의 대화가 뒤따를지는 당분간 이어질 한·미·일 3국 간의 후속 협의 결과에 달릴 전망

3 대남

● 北 “반국가단체 조직 사건은 파쇼적 폭거”(7/1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은 18일 최근 검찰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 설립을 꾀한 혐의로 10여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파쇼적 폭거”라고 맹비난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이명박 역적 패당은 탄압의 마수를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과 야당에까지 뻗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하면서 현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을 선동

● “금강산문제 두번째 남북접촉때 분위기 좋았다”(7/19, 연합뉴스)

- 지난 13일 진행된 남북간 금강산 재산권 관련 협의는 지난달 29일 첫 협의에 비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

- 민관합동협의단 자격으로 두 차례 협의에 모두 참석했던 금강산 투자기업의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9일 남북간 첫 협의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13일 두번째 협의 때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남북간 대화가 이어졌다”고 전함.

● **정부 ‘대북 밀가루 지원’ 9개월만에 승인 가닥(7/19, 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들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밀가루는 군 식량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개연성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부담을 느껴온 품목이어서 밀가루 지원이 재개되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
 - 정부 당국자는 19일 일부 민간단체의 밀가루 대북지원 추진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밀가루를 금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지원된 밀가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함.

● **김국방 “한미일 3각 동맹체제 생각안해”(7/20,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중·러 협력체계에 대응해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원칙에 찬성한다”면서 “전술핵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다 놓겠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 **원광대, 북한에 유아용 분유 전달(7/21, 연합뉴스)**

-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0일 북한 개성에서 유아용 분유 6천 캔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에 전달한 분유는 북한의 유아 500명이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이 분유는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영양결핍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전달될 예정

● **北단체, 南국가보안법 비난(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인권연구협회가 22일 공동고발장을 발표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파쇼악법’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4개 장과 25개 조문, 부칙으로 돼 있는 보안법은 가장 반인권적인 파쇼악법”이라며 “보안법은 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인권문제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밝힘.
- 이어 “이명박 패당이야말로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반인권범죄행위의 주범”이라며 “괴뢰 패당은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폐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임.

● **北, 한미군사훈련에 “참을성에 한계” 위협(7/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다음달 16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군사적 보복을 위협
-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실시하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방어훈련이 아닌 북침을 노린 핵공격연습”이라며 “호전광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북침핵전쟁 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해야한다”고 주장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25-7.31

7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정은, 해군사령부 시찰(7/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해군사령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해군사령부 방문을 보도하기는 2002년 5월2일 이후 9년 만으로 그해 6월29일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고속정을 공격하는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바 있어 이번 시찰이 주목
 - 이날 시찰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경옥·김명국·김원홍,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수행

- **北리종산 차수 사망…김정일 애도화환 보내(7/2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리종산 조선 인민군 차수(큰 별 하나·대장 바로 위 계급)가 사망한 것으로 25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 리 차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 일반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은 ‘원수’(‘목란 없는’ 큰별 하나)로 김일성 주석한테만 부여된 ‘대원수’(목란+큰별 하나)와 김 위원장에게 붙여진 ‘공화국 원수’(목란 반+큰별 하나) 타이틀이 따로 있음.

- **北 이번 지방선거서도 ‘100% 찬성표’(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24일 실시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투표 참가자들이 후보자에게 100% 찬성표를 던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중앙선거지도위원회의 대의원 선거결과를 종합해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했다”고 전함.
 - 북한의 선거는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단독후보에게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찬성이면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반대를 표시하려면 연필을 집어들어 후보자의 이름에 횡선을 그어야 하는데 투표자의 뒤편에서 북한 당국자가 지켜봐 반대표를 던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 **北 박의춘 외상, 말聯 부총리 예방(7/26, 더스타)**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부총리를 예방했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더 스타’ 인터넷판이 26일 보도
- 신문은 말레이시아를 처음 방문한 박 외상이 전날 3일 일정으로 입국,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함께 부총리를 만났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박 외상이 이번 방문기간에 부킷 잘릴에 있는 말레이시아 테크노파크를 방문하고 경제계획위원회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북미회담 앞두고 北 ‘평화협정 체결’ 강조(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전협정과 조선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힘.
- 논평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호상 불신을 가실 수 없고 비핵화도 순조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 과정이 보여준 교훈”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신뢰조성의 시작으로 조미 쌍방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 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담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美미사일방어망, 새로운 핵무기 경쟁 촉발”(7/28, 연합뉴스)**

-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각)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유엔의 핵무기 해체 토론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 “절대적 핵 우위를 얻고 다른 핵 경쟁국에 대한

전 세계적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신 대사는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이 핵확산에 관해 다른 국가에 뒤라고 말할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임.
-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2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할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

● **김정일 ‘전승절’ 경축 공연관람·연회참석(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전승절(휴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열린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경축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공연관람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부장, 최룡해·박도춘 당비서,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태종수·김평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함께 했으며, 또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명국·김원홍·김영철·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도 참석
-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에서 마련한 전승절경축연회에도 참석

● **김정일·정은, 5·11 전자공장 현지지도(7/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액정TV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장을 돌아보고 현대화·CNC(컴퓨터수치제어)화된 생산공정에서 조립된 전자제품들을 보면서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창조정신을 치하했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해군사령부 시찰(7/25, 중통·중방)
- 김정일, ‘5월11일공장’ 현지지도(7/29,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박의춘 외무상, 7.22 인도네시아 라오스 외무상 및 아세안 총서기와 촉촉 담화(7/25, 중통)
- 김영일, 7.25 영국 레이버당 전국정책연단 성원들과 만나 담화(7/25, 중통·중방)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에 의해 駐불가리아 대사에 '주왕환' 임명(7/25, 중통·평방)
- 박의춘 외무상 일행, 7.25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전력상과 담화(7/26, 평방)
- '조국해방전쟁승리 5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7.26 김영남, 리영호(총참모장/보고), 최영림, 김영춘, 김기남(사회) 등 참석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7/26, 중통·중방·중앙TV)
- 北 내각,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4개장 60개조) 발표(7/26, 중통)
- 최영림 총리, 7.26~27 평양민속공원·태권도성지건설장·평양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장 현지 요해(7/28, 중통)

나. 경제

● 中 을 상반기 두만강유역 대북 교역 급증(7/26, 연변인터넷방송)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회령과 맞닿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정(龍井)시 삼합(三合)통상구의 올해 상반기 대북 교역량이 5만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6일 보도
- 용정시는 대북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수속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북한도 수출·입 화물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 물량과 쌀과 밀가루 등 중국산 곡물의 수입 쿼터를 늘리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이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식량난, 수년 만에 최악”(7/26, AP통신)

- 북한이 집중호우와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해 수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AP 통신이 평양 순안발로 26일 보도
- 통신은 평양에는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햄버거와 피자 가게도 북적이는 등 식량이 풍족해 보이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지 주재 외국 구호단체를 인용해 전함.
- 북한은 과거 약 10년간 남한의 지원과 경제협력으로 식량 부족분을 메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은 후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모든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켰으며, 월평균 남북 교역량도 지난해 상반기 미화 4천만 달러에서 올해 들어 100만 달러 규모로 위축됐다고 통신은 설명

- 식량 사정이 나빠진 이유로는 불리한 지형과 기후 조건, 토양 산성화, 비료 부족 등과 함께 최근 구제역으로 농사에 쓸 소가 부족해진 점 등이 꼽힘.

● **中, 北 석영 채굴권 확보.. 연 5만t규모(7/27, 길림신문)**

- 중국이 북한의 석영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길림신문이 2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長白)현에 있는 장백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가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량강도 김정숙군에 있는 석영 광산을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이 광산에서 채굴된 석영을 처음으로 중국에 들여옴.
- 이 회사는 북한 측과 오랜 협의 끝에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으며 연간 4만~5만t의 석영을 채굴해 중국에 들여올 계획

● **“국제적십자, 황해도 수해지원 시작”(7/27,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국제기구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황해도 지역에 구호물품을 분배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자료를 통해 “조선적십자회가 개성시를 포함한 황해북도 수재민들에게 주방용품, 식수통, 이불, 방수비닐막 등이 포함된 응급 구호세트 600개를 분배했다”며 “앞으로 황해남도에서 2천460세트를 더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NGO ‘모니터링 방북’ 줄 잇는다(7/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기구와 유럽연합(EU)이 엄격한 분배 확인을 조건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 민간단체(NGO)들이 지원물자 분배 확인을 목적으로 잇따라 방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구호단체인 캡 아나무르(Cap Anamur)의 번트 고켄 대표는 평안남도 안주 등에 지원한 쌀과 콩의 분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주말 방북해 내달 3일에 돌아올 예정
- 또 북한 내 29개 결핵병원과 요양원에 의약품과 식량 등을 지원하는 미국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은 8월 초에 닭고기 통조림과 영양보조제, 담요

등을 실어 북한으로 보낼 예정

- 방송은 또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콩우유를 지원하는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도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 19일 120t의 콩이 북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전함.

● “北, 캄보디아 쌀 수입 희망”(7/27, 연합뉴스)

-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은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해 가능한 한 조기에 쌀 수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우치 보리트 캄보디아 외무차관이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대신 캄보디아에 광산 개발 및 수력발전 댐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서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제안

● “상반기 北中교역 사상최대…작년의 2배”(7/29,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북중간 교역액이 25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통계자료를 종합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중간 교역액은 25억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8천800만달러의 배에 달함.
-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3억5천만달러)보다 202%증가한 10억5천600만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수입액은 14억5천만달러로 작년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쳐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5억9천만달러에서 3억9천200만달러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北-中, 라선 공동개발 계획 기본 틀 합의(7/29, 길림신문)

- 북한 라선시와 중국 지린(吉林)성이 29일 라선 경제무역구 공동개발 계획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
- 신문은 양측이 이날 창춘(長春)시 난후(南湖)호텔에서 ‘중조(中朝) 라선 경제무역구(2011-2020년) 계획 기본 협의’를 맺었다고 전함.
- 쓴 서기는 이 자리에서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린성은 이미 라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며 교통망과 자원 개발, 농업 분야에서 합작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소개

● 北 “황해북도 서흥군 농경지 70% 침수”(7/30, 조선신보)

- 황해북도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서흥군의 농경지 70%가 침수돼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평양에서 약 110km 떨어진 서흥군은 벼와 강냉이의 생산지로 지난 12~15일 480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데 이어 26~28일에도 302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이 신문은 전함.
- 서흥군인민위원회의 염정연 사무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자료가 종합되면 피해 상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빗물이 빠진 뒤 흙탕물에 잠긴 농작물을 깨끗이 씻어냈으나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40%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함.

다. 군사

● 北, 서해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준비(7/26,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에서 지상·해상·공중 합동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함정과 전투기가 집결해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인 27일 이후에 상륙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또한 북한군은 서해 남포 갑문 주변에 상륙함정과 공기부양정, 전투함 등 20여척을 대기시키고, 강원도 원산기지에 있는 미그-21 전투기를 온천 비행장으로 전개해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소식통은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하고 있지만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우리 군이 지난달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한 것에 대한 대응훈련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군, 호우로 훈련규모 축소..병력 장비 철수(7/29, 연합뉴스)**

-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준비했으나 집중 호우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함정과 전투기를 집결시켜 지상·해상·공중 합동훈련을 실시할 징후가 포착됐으나 정작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훈련에 참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정전협정 체결일(7.27)에 즈음해 합동훈련을 하려 했으나 기상조건이 맞지 않았고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부대가 침수되는 피해에 따라 훈련 규모와 일정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함.

■ 기타 (대내 군사)

- 北군사대표단-라오스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 7.28 평양에서 회담(7/28, 중통·평방)

라. 사회·문화

● **北,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채택(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내각의 결정으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중앙통신은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은 공화국의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집행해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함.
- 시행규정은 4개장, 60개조로 구성됐고 환경보호사업, 환경오염 예방, 자연환경 보존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음.

● **北 “댐·갑문으로 대동강 홍수 막아”(7/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동강 유역에서는 이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중앙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기상수문군 일군들에 의하면 7월 중순 우리

나라 중부지대에 여러날 머무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무더기비(집중호우)가 내렸다”며 “그러나 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대동강 유역에 쏟아 난 발전소 언제(댐)들과 서해갑문을 비롯한 계단식 갑문들이 이번 큰물(홍수)을 손쉽게 막아냈다”고 주장

● 유엔 수해조사단 “황해도 수인성 전염병 급증”(7/29, 자유아시아방송(RFA))

-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황해남도 해주시와 청단군, 황해북도 서흥군 등 수해지역에서 피해를 조사한 유엔 합동대책단은 “황남 청단과 해주에서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환자가 각각 20% 이상, 40% 증가했고 말라리아와 피부병 감염도 늘었다”고 밝힘.

● 北신문, 강성대국 건설에서 여성역할 강조(7/30,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65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건설 과정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
 - 신문은 이날 ‘여성들은 오늘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대고조 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체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주위)에 일심단결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 여성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펼쳐나가자”고 촉구
 - 민주조선도 이날 사설을 통해 “여성들은 강성대국 건설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해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며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기수들처럼 오늘의 강성대국 건설 대전에서 영웅적 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돼야 한다”고 논평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태권도 시범단의 美國 공연’은 “兩國間 왕래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련되고 있는 관계개선의 확증”이라며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전략적, 역사적인 결단” 촉구(7/26, 중통)
 - 北 학생들, 제52차 국제수학올림픽(7.17~23/네덜란드)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획득(7/26, 중통)

2 대외

● “北·日, 지난주 中 창춘서 접촉”(7/25, 교도통신)

-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일본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주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복수의 북·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나카이 전 담당상은 이를 부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교도통신은 나카이 전 담당상이 지난 21, 22일 중국 창춘(長春) 시내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회담했다며, 나카이 전 담당상의 중국행에는 일본 내각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직원도 동석했다고 전함.
- 이 통신은 북일 양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의견 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주 미국 뉴욕에서 1년7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데 맞춰 북·일 간의 물밑 절충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후진타오, 김정일에 ‘수해 위로’ 전문(7/31,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후 주석은 지난 29일자 전문에서 “최근 귀국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 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나는 중국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조선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동정과 진심으로 위문을 표시한다”고 말함.
- 중앙통신은 앞서 중국 정부와 홍십자회(적십자사)가 북한에 긴급 구제물자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구제물자 지원이 큰물(홍수) 피해 지역에서 북구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인민들을 격려해줄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7.27)】 “北-美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문제 해결의 첫걸음” 강조 및 美國에 “對北정책 변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 촉구(7/27, 중통)

3 대남

- **정부, 금강산회담 제의…밀가루 지원 승인(7/25, 연합뉴스)**
 -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과 관련, “오늘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이어 관계자는 “통지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라고 썼다”며 “이번 통지문은 앞으로 금강산 문제는 당국 간에 논의해 풀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지난번 접촉에서 관광재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재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함.

- **“北 천안함·연평도에 진정성 보여야”(7/25, 연합뉴스)**
 - 통일부는 25일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답함.

- **北 “南당국, 금강산 재산정리사업 휘방”(7/26, 조선중앙통신)**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조선 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관광을 속히 재개해 기업 및 재산등록 등 남측기업 이권도 보장 해주려는 취지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마련했다”며 “남측은 이에 무성의하게 대하고 자국 기업들의 재산정리 차 금강산으로 가는 것을 일부러 가로막았다”고 말함.
 - 대변인은 “남측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29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 재산정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했으나 남측은 ‘특구법 철회’ ‘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입장을 고집, 민간기업들을 제치고 저들이 재산정리 협상과 관광사업 협의를 독차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보였다”고 지적

● 北 “南기업 새 금강산관광 동참댄 손실보상”(7/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8일 자신들이 만든 새 금강산 관광사업에 현대아산 등 기존의 남측 기업들이 동참할 경우 그동안 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는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기업들이 새로운 관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만약 그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경우 부동산은 그대로 있게 되며 지난 3년간 입은 경영손실액도 인차(곧) 보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금강산 부동산처분 실천적조치 돌입”(7/2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남측 재산정리 자체 요구시한인 29일 정오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남측 기업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정부와 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북한은 또 우리 기업인들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입회한 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ARF를 계기로 실현된 ‘南-北 외교당국자 회동(위성락-리영호)’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南北관계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대결구도 청산은 北의 목표” 강조(7/26, 조선신보)
- 韓美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8.16~26) 관련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 왜곡 주장하며 “핵전쟁의 참화를 들썩우려고 미쳐날뛰는 극악한 역적의 무리, 전쟁미치광이들”이라고 再次 비난(7/31, 중통-민주조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01-8.07

8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청년신문에 김정은 찬양글…우상화 본격화(8/1, 연합뉴스)**
 - 북한의 청년조직 기관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실어 세대교체의 가속화를 예고
 - 1일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는 지난달 31일자 2면에 ‘전설적 위인이신 김대장 선군의 총대 높이 드셨다’는 제목의 글을 지면의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톱으로 게재
 - 김정은을 찬양하고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 글은 같은날 조선중앙TV가 주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는 ‘오늘호 중앙신문 개관’에서도 다뤄져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소개
 -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 등 주요신문이 아닌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실은 것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총리, 황해도 수해지역서 협의회 열어(8/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청단군 청정리와 심평리 등 큰물(홍수)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갖는 등 현지 요해(파악.了解)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최 총리는 수해지역 요해에 앞서 평안남도 온천군의 운하·금당협동농장을 돌아보고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 알곡 소출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동아시아 안정 위해 북미 관계 개선 필요”(8/2, 연합뉴스)**
 - 북미 고위급 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현지시각)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제1부상은 이날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등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숙소인 밀레니엄 호텔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핵, 남북 대화, 식량 지원, 인권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얘기했지만, 각 사안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림경만 北라선 책임비서, 中다론허 시찰(8/3, 신상보)**

-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 중인 림경만 북한 라선특별시 책임비서가 다론허(大連)을 방문, 항만 등을 시찰했다고 현지 언론인 신상보(新商報)가 3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림 비서 일행은 지난 2일 탕궈(唐軍) 다론허시 서기와 만나 양측 간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
- 림 비서 일행은 탕 서기 면담에 앞서 다론허 경제기술개발구를 방문해 항만 건설과 운영, 도시 녹화 사업 등을 둘러봄.
- 림 비서의 이번 다론허 방문은 북한이 라진항 개발 모델로 삼으려는 다론허 3호 부두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황해남도 큰물피해 정형 현지요해(8/1, 중통)
 - 청단군 청정리와 심평리를 비롯한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협의회 진행. 저수지, 농경지 등 복구 문제와 인민생활 안정대책 등 토의
- 김일성의 '세계혁명에 관한 사상이론'(反帝공동전선 형성 등)은 "세계혁명이 나아갈 길을 밝힌 불멸의 햇불,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 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주장(8/2, 중통·노동신문)
- 「청년동맹」 중앙총 제45차 전원회의, 8.2 리용철(「청년동맹」 1비서/보고) 등 참가자 평양에서 진행(8/2, 중통)
- 「직총」 중앙총 제69차 전원회의, 8.2 현상주(「직총」 위원장/보고) 등 참가자 평양에서 진행(8/2,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8.2~3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현지 요해(8/3, 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8.4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 요해 및 '협의회' 진행 (8/5,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라선시 대표단, 中선양 방문(8/1, 심양일보)

- 립경만 북한 라선시 책임비서 일행이 지난달 3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를 방문, 쩡웨이(曾維) 당서기 등 선양시 간부들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심양일보(瀋陽日報)가 1일 보도
- 이날 면담에는 리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와 마잔춘(馬占春) 선양시 비서장 등이 배석했다고 신문은 전함.
- 립 비서의 이번 선양 방문은 이 지역 기업들의 라선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한편 라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랴오닝성이 황금평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

● “北 수해로 농작물 수확량 10% 감소 예상”(8/2,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 등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작물수확량이 최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일 “벼 경작지가 많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지에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크다”며 “북한의 취약한 농업인프라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작물 생산량은 작년(450만t)보다 약 10% 감소한 400만t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최근 황해도 등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본 유엔 합동수해현장 실사단에 참가한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인용해 “곡물생산에 대한 홍수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긴 이르지만 밀, 감자, 보리 등 조기 작황 곡물과 주곡물인 쌀 등의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 국제적십자, 北수해복구에 58만달러 긴급지원(8/3,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58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이 3일 보도
- 외신들은 “IFRC가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 긴급구호 기금으로 58만2천194달러(약 6억1천6백만원)를 배당했다는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고 전함.

- 보고서는 “IFRC는 특별예산으로 수재민에게 식량 이외의 구호품을 제공하고 수해지역 현장실사, 수재민 파악 및 등록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황해도와 함경남도 내 10개군에서 2012년 2월까지 6개월간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 **FAO “北 쌀수확량 작년보다 1% 늘어날 듯”(8/4, 미국의소리(VO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향후 기상변이 없다면 올가을 북한의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약 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
- FAO는 ‘쌀시장 모니터’ 보고서에서 “작년에는 봄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벼씨 파종 시기가 늦어졌지만 올해는 이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기상변이 없는 한 9월 북한의 쌀 생산량은 도정(쌀껍질을 벗겨냄) 후 기준으로 작년 가을 쌀 수확량보다 1% 늘어난 1백6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

● **“北 하나전자 ‘자본주의 경영’ 첫 도입”(8/5, 미국의소리(VOA))**

- 유럽계 투자회사가 북한에 설립한 ‘하나전자’가 품질보증 등 자본주의 경영 기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홍콩에 본부를 둔 유럽계 투자회사인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최근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조선하나전자합영회사’가 북한 최초로 품질보증과 대리점을 통한 판매 등 서구식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힘.
- 하나전자는 자사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6개월 내 무료로 반품을 받아주는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제품광고도 시도하고 있다고 이 회사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7.5~6/김정일, 7.10 전시회 현지지도)는 “인민소비품 생산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한 중요 계기” 강조 및 “경공업 부문의 총공세로 2012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할 것” 선동(8/1, 중통·노동신문 사설)
- 세계 각국의 ‘희토류금속자원’(현대산업의 ‘비타민’) 수요·공급문제, 자원 확보 등을 둘러싼 ‘마찰과 신경전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傳言(8/2, 중통·민주조선)
-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김정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라며 “각지 시, 군 인민위원회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경공업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 독려(8/3, 중통·민주조선)

다. 군사

● 北, 논란 속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데뷔(8/5, 연합뉴스)

- 북한이 논란 속에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의장국으로 데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세평 주(駐)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4일(현지시각)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참석했으나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에 항의해 이 기간 군축회의에 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캐나다는 불참
-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늘 지지해 왔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에 군축회의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호소

■ 기타 (대내 군사)

- 北 군대와 지방 당·정권기관 일꾼들, 8.6 中 해군 훈련함선편대 방문(8/6, 중통)

라. 사회·문화

● 北 “수재민 8천명, 농경지 6만정보 침수”(8/1,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지난 6월 태풍 ‘메아리’와 7월 폭우로 살림집 2천900여채(황해남도 2천200여채)가 파괴되고 8천여명의 주민이 가설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중앙통신은 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센 바람과 갑자기 불어난 큰물(홍수)로 수십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했고 6만 정보(595 km²)의 농경지가 침수·매몰·유실돼 올해 알곡생산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이와 함께 중앙통신은 “170여 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이 무너졌고 산사태와 옹벽 파괴로 도로·다리가 끊어졌다”며 “고압철탑 1개를 비롯한 300여대의 전주대(전봇대)가 넘어져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8천400여 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졌다”고 밝힘.

●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8/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1일 저녁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이번에 창조집단은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조국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새로 창작하고 형상화했다”고 밝힘.

● 北 “수해지역서 균증적 복구사업 활발”(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은 2일 황해남도 청단군 등 폭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 복구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최근 이어진 폭우와 홍수로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주택과 농경지를 비롯해 공공건물, 공장, 도로, 다리, 철길, 제방이 파괴·매몰·침수됐다고 전하며 “피해지역에서 복구사업이 균증적으로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힘.
-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청단군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청단)군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일군들이 짧은 기간 안에 피해를 가시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며 “침수된 농경지들에 대한 고인물 빼기와 농작물 살리기, 도로 및 살림집 복구 사업이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 장군님 한마디에 평양서 ‘장미심기 운동’(8/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수도 평양 전역에서 때아닌 ‘장미심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주민 간에 ‘장미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최근 북한 관광을 마치고 돌아온 한 중국인은 평양에서 장미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 거리에 심어진 장미를 보고 “장미꽃이 보기 좋다. 평양에도 심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RFA에 전함.

● 유니세프 “北 모유수유율 90% 육박”(8/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6개월 미만 신생아 중 88.6%가 모유 이외에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방송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지난 2009년 북한 당국과 함께 북한 전역의 7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완전모유 수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은 북한 보건성이 정책적으로 완전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유니세프 조사결과 24개월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급식을 받고 있는 어린이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평양서도 아이패드로 인터넷 접속 가능”(8/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도 미국 애플사의 최신 휴대용 컴퓨터인 아이패드(iPad)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최근 방북한 미국인 전문가는 북한내 유일한 휴대전화 업체인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의 외국인 직원이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최신형 아이패드를 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RFA에 전함.
-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남기구나 당 총정치국 정도이지만 최근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책공대 등에서도 학습목적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RFA는 북한에서 곧 아이패드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는 현지 체류 외국인이나 북한의 일부 최고위층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봄.
- ‘북한내 아이패드 사용’을 전한 미국인 전문가는 또 평안북도 향산군과 묘향산 인근 향산호텔 객실에서 CNN, MTV 등 외국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외부세계와 접속이 점차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함.

● 北 “7월 하순 폭우로 30여명 사망” (8/5, 연합뉴스)

- 북한은 7월 하순 내린 집중호우와 큰물(홍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사망자 발생, 6천480여 동의 살림집(주택) 파괴, 1만5천 800여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또 4만8천여 정보(476km²)의 논과 밭이 침수되거나 매몰·유실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음. 북한 매체가 울여름 폭우에 따른 구체적인 인명피해 숫자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임.
- 중앙통신은 이어 “생산건물과 공공건물 350여 동이 무너지고 강·하천과

- 해안방조제 물길의 폭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산사태로 철길 노반이 파괴되고 6천900여m의 다리와 도로가 끊어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복구용 자재의 수송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가 났다”고 강조함.
-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국제적십자사(IFRC)의 내부자료인 ‘재난관리 정보시스템(DMIS)’에서도 북한 당국이 이번 폭우 피해를 집계한 결과 황해남도에서만 사망 26명, 실종 4명에 8명이 다치고 8천860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됨.
 - IFRC는 황해남도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추산한 결과 연안군, 청단군 등지에서 2천901채의 주택이 완파되면서 주민 96명이 부상하고 2만 8천4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함.
 - 이에 따라 IFRC는 북한의 수해 복구 용도로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응급구호물자 지원을 북한적십자사(북적)와 공동으로 요청했음.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8.1 저녁 김기남·최룡해(黨비서), 강능수(내각부총리), 안동춘(문화상/개막연설) 등 참석下 5.1경기장에서 개막(8/1,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北-EU 외교관계 설정(2001.5.14) 10돌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새로 발행(8/1,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UN의 올해 ‘국제화학의 해, 국제산림의 해’ 선포 관련 새 우표들(개별우표 1종, 소형전지 1종) 발행(8/2, 중통)
- 北 보건성과 연관단위들의 ‘먼거리 의료봉사사업’ 확대를 위한 통신하부구조건설 등 완비 및 각지 양어기지들의 ‘용정어’ 養魚 성과와 확대 보급 자랑(8/2, 중통)
- 北,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연일 성황리 진행(8/3, 중통)

2 대외

가. 일반

- 美 “北, 핵프로그램 전세계에 투명히 공개해야”(8/2, 연합뉴스)
 - 미국은 1일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에 이같이 반응
- 그는 또 뉴욕에서 열린 북미회담 결과와 관련, “좋은 만남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거듭 평가한 뒤 “6자회담 국가들과 향후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中함대, 15년 만에 北 방문(8/2,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중국 해군훈련함대 소속의 정허(鄭和)호와 뤼양(洛陽)호가 이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태평양함대의 본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했다고 보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함대의 북한 방문은 지난 1996년 이후 15년 만으로,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北 “日 영토야욕 도를 넘어서고 있다”(8/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일본의 영토 야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를 맹비난
- 논평은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시회를 수도(도쿄)의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벌려놓는다고 한다”며 “도쿄에서 독도 모형과 지도, 독도로 건너갈 수 있는 면허증까지 공공연히 전시하고 오만방자한 놀음판을 벌이는 것은 일본의 끝없는 영토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

● **메드베데프 대통령, 김정일에 수해위로 전문(8/3,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게 북한의 수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해 진심으로 위문을 표시한다”며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동정을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힘.

● 패네타 “긴밀히 北 주시 필요”(8/5,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우리는 이란,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을 긴밀히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가 보도
- 패네타 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예산삭감 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 도중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질문에 알-카에다 등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란과 북한이 “핵능력을 가질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그들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北-캄보디아, 교류·협력 협정문 체결(8/5, 자유아시아방송(RFA))

- 캄보디아가 최근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과 보리트 캄보디아 외무차관이 맺은 ‘경제무역 협력 강화’에 대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이번 협정문에는 ‘북한과 캄보디아가 경제, 무역, 지식정보, 해양교통, 투자, 외교, 문화 등 7개 분야에서 두 나라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양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北-美적십자, 이산가족 서한교환 합의(8/6, 연합뉴스)

- 지난 5월 북한과 미국 간에 재미 이산가족 10가족의 서한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6일 “미국 적십자사 고위관계자와 유엔주재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접촉해 적십자사 간에 통용되는 ‘레드크로스 메시지’ 방식을 통해 시범적으로 이산가족 간 서한 교환을 추진하고 이후에 상봉을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상봉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 합의가 실행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북미대화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외무성이 관련돼 있어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 美 “北 수해상황 주시중, 긴급지원 지지” (8/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5일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최근 발생한 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하에서의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면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어떤 정치적, 안보적 이슈와는 관련돼 있지 않다”고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
-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일정한 정도의 의료, 생필품 등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 발표로 해석됨.

■ 기타 (대외 일반)

- 러시아대통령, 8.2 김정일에게 큰물피해 관련 위문전문(8/3, 중통)
- 김기남(黨비서), 8.3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대표단과 담화(8/3, 중통·평방)
- ‘北-러 모스크바선언’ 발표(2001.8.4/김정일, 2001.7.26~8.18 러시아 방문) 10돌 즈음 “兩國間 친선 협조관계 발전의 역사적 계기” 力說 및 “△라진-하산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 △러 대외정보국 대표단 訪北 등 쌍방관계는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발전될 것” 강조(8/4, 중통·노동신문)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8.5 중국해군 훈련함선편대 지휘성원들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8/5,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北 “북미회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8/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쌍방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각측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

했으며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또한 그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려는 북한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말함.

● 中, ‘6자회담 조속재개’ 北 주장 지지(8/2, 연합뉴스)

- 중국이 조건없이 북핵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지지하고 나섰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외교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진전의 기회를 포착,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 김계관·우다웨이 회동한 듯.. 6자 논의(8/4, 연합뉴스)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부상이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포함한 중국 측 6자회담 라인을 접촉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부상은 필요에 따라 5일 중국 측 항공편 또는 6일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외교가에서는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김 부상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김 부상은 오랜 카운터파트였던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직접 만나 지난달 28~29일 ‘뉴욕 북미대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8.1)】 ‘北-美 고위급회담’ 진행(7.28~29/뉴욕) 관련 “兩國 관계개선, 한반도 정세안정,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을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게 논의” 언급(8/1, 중동·중방)
- 쌍방은 北-美관계를 개선하고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각측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가려는 北의 입장은 일관함.
-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염원”이라며 中 ‘인민일보·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7.24일부) 및 中 외교부장·러시아 외무상의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언급 등 소개(8/5, 중동)

3 대남

- **정부, 밀가루 이어 대북 장비지원도 첫승인(8/1, 연합뉴스)**
 -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한 정부가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의 대북 반출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태 등이 우리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물자와는 다른) 별도의 반출 기준을 적용했다”며 “말라리아 장비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판단과 기생충학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

- **민화협, 北사리원에 2차분 밀가루 300t 지원(8/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김덕룡 대표상임의장)는 2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주민을 돕기 위해 밀가루 300t(1억8천만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지원은 지난달 26일 밀가루 300t을 지원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다시 2차분을 보낸 것으로 ‘굿네이버스’와 ‘남북평화재단 함께나누는세상’의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민화협은 매주 화요일 밀가루를 보내 8월 말까지 총 2천500t의 밀가루를 지원할 계획

- **北 “금강산 재산처분은 인내끝에 내린 조치”(8/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북한 당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실천적 처분 조치’와 관련, “최대의 성의와 인내 끝에 내린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
 - 이 매체는 이날 논평에서 “현대 독점권이 취소되고 금강산특구 내 남조선 기업들의 재산정리 문제가 나서게 된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말함.
 - 이어 “우리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한 것은 국제법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국제법과 관례를 놓고 책임과 대가를 따진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남조선당국에 대고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

● ‘잘나가는 개성공단’…상반기 교역액 19%↑(8/3, 연합뉴스)

- 남북 경색 국면에도 올해 상반기 개성공단 교역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남북 교역규모(반입·반출 포함)는 총 8억2천588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교역규모인 6억9천109만 달러보다 19.5%(1억3천479만5천달러), 2009년 3억5천24만 달러에 비해서는 135.8%(4억7천564만 달러)나 늘어난 것임.
- 반면 일반교역(광산물·농림수산물 등)·위탁가공 등의 상업적 교역, 인도적 지원·사회문화교류 등의 비상업적 교류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전체 교역 규모는 8억3천278만 달러로 작년 9억9천412만 달러보다 1억6천134만3천 달러(16.2%) 줄어듬.
- 이는 정부가 작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한 교류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으로 분석

● 정부, 北에 50억원규모 수해지원 제의(8/3, 연합뉴스)

- 정부는 3일 북한 지역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보낸 통지문에서 “한적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구호물자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지원물자는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원 상당의 물품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제의

● 北, 美서 새 금강산 사업자 선정(8/3, 연합뉴스)

- 미국 뉴욕의 한국계 무역회사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는 북측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5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양해각서는 이 회사가 미주지역에서 금강산 관광 선전과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금강산을 복합형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

- 이 회사 박일우 대표는 “금강산 관광개발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지난주 평양지사의 직원이 내 지시를 받아 북한 정부 측과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 북한을 직접 방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함.

● 北 ‘컴퓨터 영재’ 대남 사이버 침투(8/4, 연합뉴스)

- 북한 해커들을 끌어들여 국내 게임아이템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광범위하게 저질러온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범행에 가담한 해커들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키운 최고 실력자들인데다 수법 역시 디도스 등 사이버테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돼 두 차례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망 해킹에 이어 북한이 언제 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구축된 ‘오토프로그램’ 제작·공급 총책 정모(43)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이들이 영입해 국내 온라인게임 서버를 해킹한 북한 해커는 모두 30여명으로 이들은 모두 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출신임.
- 또한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4~5년 전부터 외화벌이 수단으로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에 해킹 수법도 발전을 거듭했다”며 “오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나중에 대남 사이버테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장치로 판단된다”고 말함.

■ 기타 (대남)

- ‘제43차 韓-美 SCM 군수협력위·UFG 훈련(8.16~26)’을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도발”로 持續 비난(8/1, 중통·노동신문)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확정 발표 관련 “지역주민들의 탈출사태로 인해 비주민지대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관광의 미명하 외국관광객들까지 끌어들여 인간방패를 형성하려는 것”이라며 “간판을 바꾼 북침도발계획”이라고 왜곡 비난(8/3, 평방)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77호(8.4)】 南 공안당국의 ‘간첩단사건’ 관련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 재집권을 노린 광대극”으로 비난하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 요구(8/4, 중통·평방)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8.6)] 南 당국이 “현 정권 출현 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을 조작 및 北과 연계시키는 비열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再次 왜곡 비난(8/6, 중통)

8.08-8.14

8 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 7개월만에 모습 드러내(8/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전일춘 북한 노동당 39호실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월11일공장 현지지도를 전하면서 전 실장과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보도
 - 39호실은 노동당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곳으로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평대흥수산사업소, 문천금강제련소, 대성타이어공장 같은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면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폐) 제작,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전일춘은 지난해 3월10일 북한의 경제개발 자금을 담당하는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에 선임됐고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의 이사를 맡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UFG 중단” 촉구… 한·미에 공개서한(8/8, 조선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한미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지를 요구
 - 대표부는 7일자로 작성된 서한에서 “UFG연습 중지로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공식표명해야할 것”이라며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민심의 기대에 비춰볼 때 그 다음 날부터 상대방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관계개선을 전면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北김경희 공식석상 등장…김정일 현지지도 수행(8/8, 조선중앙통신)**
 - 두 달 넘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북한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동행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일 위원장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함경남도 소재)를 현지지도했다고 전하면서 수행자 명단에 김경희 부장의 이름을 올림.
 - 이날 현지지도에는 김경희 부장 외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태종수 당비서, 현철해 국방위 국장,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함께 함.
 - 김 위원장은 기업소 생산능력확장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수직방사직장, 견절직장 등 기업소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물질적 기술적 토대에 기초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
 - 비날론은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로, 북한은 비날론을 ‘민족의 주체섬유’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주민들의 의복생활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北매체, 李대통령 비난 문구 삭제후 보도(8/9, 연합뉴스;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이 기존 기사를 재방송하면서 이 대통령 실명 비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평양방송은 9일 오전 8시50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해외의 동포들이 대단결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족대단결은 통일운동의 중요 과제’라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 기사는 지난 6월28일에도 보도됐던 것으로 9일 재방송에서는 기존 기사에 포함된 ‘이명박 역적패당’, ‘이명박 역적’이라는 표현이 각각 ‘남조선 보수집권세력’, ‘남조선 보수패당’으로 바꿈.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5대 매체들은 5월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천70건에 달하는 이 대통령 실명 비난기사를 내보냈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전후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달 5일부터는 대통령 실명 비난 기사를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관망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고 분석

● **北총리, 산업현장 현지 요해(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6일부터 10일까지 여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 요해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최 총리는 전국8월31일인민소비품전시회장, 안주절연물공장, 락랑구역 연료사업소, 평양326전선공장,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해 현지에서 협의회를 가짐.
- 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절연물 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인민생활에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전선생산을 늘리고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줄 데 대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소개

● **김영춘 ‘위상 약화’…北군부 세대교체 일환(8/11, 연합뉴스)**

- 남한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 권력이 세습되는 와중에 김 부장의 위상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을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 그 배경과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함.
- 그는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은 김 부장의 위상 하락은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관련된 군부 내 젊은 세력들이 기존 김 부장의 세력들을 치고 나가는 세대간 실력대결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사실 김 부장의 위상 약화는 지난해 당대표자회에서 김 부장보다 7살이나 어린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위상이 급상승한 것과 대비돼 지속적으로 거론
- 그러나 김 부장의 위상 약화 및 리 부위원장의 위상 강화에 대해 전문가 들은 대체로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세대교체의 하나로 평가

● **北, “포사격 주장은 발파작업 오해” 전통문(8/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포사격에 대해 발파작업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 8시40분께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 단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발파작업’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힘.
- 북측은 전통문에서 이번 포격사건이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를 유지하려는 남측의 고의적인 산물”이라면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
 - 앞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도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10일 서해 5개 섬과 가까이 하고 있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대상물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정상적인 발파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전통문의 내용을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상투적인 억지 주장이 있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 **北, 日방위백서 비난…“침략문서”(8/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11일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한 일본의 2011년 방위백서를 “영토팽창을 위한 침략문서”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이날 ‘일본의 방위백서는 영토팽창을 위한 침략문서’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은 주변나라의 영토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쫓아 박고(규정하고) 중국의 해상위협을 떠든 것도 바로 그 연장”이라고 지적

● **北외무성 “북미 이산상봉 긍정 검토”(8/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측이 미국적십자회와 여러 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있는 조선계 미국인들의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문제를 우리(북한)측에 제기해왔다”며 “우리 적십자회에서는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측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온라인게임 해킹’ 부인…“南당국의 도발”(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북한 해커들이 남한의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해킹했다는 우리 경찰의 발표를 부인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괴뢰공안당국은 ‘북의 해커들이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해킹했다’는 이른바 ‘북의 사이버 테러설’을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咸南) 현지지도(8/8, 중·평방·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총리, 8.12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 현지 了解 및 ‘일꾼협의회’ 조직(8/14, 중통·중방)

나. 경제

● EU, 北수해에 20만유로 지원…UN 추가자료 요청(8/9,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수재민을 도우려고 국제적십자연맹(IFRC)에 20만유로(미화 28만달러, 한화 3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방송은 EU가 지원한 28만달러는 IFRC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일 ‘재난구호 긴급기금’으로 집행한 59만달러에 포함돼 이미 사용됐다고 설명
- 제롬 소바주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농지, 가옥 등의 피해 현황과 사상자 수치가 담긴 홍수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며 “유엔 합동대책단이 공동으로 지원하기에는 자료내용이 불충분해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힘.

● **北 “평양-상하이 무비자”…북중 관광 활발 (8/9,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1일 취항한 평양-상하이간 항공편을 이용해 많은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고 있으며 북중 당국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비자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전세비행기에 의한 관광 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1일부터 평양-상하이 국제항로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조선에 와 명승지들과 기념비적 창조물을 돌아봤다”며 “이 항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힘.
- 통신은 “전세비행기에 의한 관광이 활발해지도록 입출국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실례로 평양-상하이 국제항로로 오는 관광객들을 사증 없이 상하이 푸둥(浦東) 비행장과 평양 비행장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7월 폭우로 北농경지 5% 훼손”(8/10,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폭우로 북한 전체 농경지의 5%가 훼손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 FAO는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각 국가조정위원회가 유엔에 보고한 예비 추정치를 인용해 “7월11일부터 31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5만9천 340ha의 농경지가 침수·매몰 혹은 유실됐다”며 “이는 북한 전체 농경지 122만4천ha의 5%에 해당한다”고 설명
- 이어 “(폭우가) 황해도를 비롯한 남부 곡창지대를 강타해 재배 중인 작물이 손상을 입고 농업 기반시설이 파괴됐다”며 “황해남도 청단군, 재령군, 안악군, 은천군, 평안남도 회창군, 평원군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FAO는 전함.

● **“北, 미얀마서 쌀 8천t 수입”(8/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미얀마로부터 쌀 8천t을 수입기로 하고 현재 북한의 대형화물선이 양곤항에서 쌀을 싣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방송은 미얀마의 반정부 온라인 매체인 ‘미지마뉴스’를 인용, “북한은 미얀마 군정부로부터 차관 형태로 쌀 8천t을 수입하기로 하고 지난 8일 1만 4천t급인 두만강호를 양곤항으로 보냈다”고 밝힘.

- **“WFP, 北수재민에 비축 밀가루 80t 방출”(8/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수재민 7천명에게 밀가루 80t을 방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WFP는 “이번에 방출된 밀가루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북한에 미리 비축해뒀던 것으로 비 피해를 특히 많이 입은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수재민들에 지원될 것”이라고 방송에 밝힘.

- **“상반기 美NGO 대북지원액 작년 1년치와 비슷”(8/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상무부가 11일 발표한 국제무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미국산 물품은 총 180만달러 상당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지난해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자는 묘목과 옥수수 등 28만달러 어치로 올해의 6분의 1에 불과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 190만달러 가량의 미국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감.

- **中도문, ‘北 전용 공업단지’ 개발 본격화(8/12, 연합뉴스; 연변인터넷방송)**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도문(圖們)시가 북한 전용 공업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2일 연변인터넷방송과 도문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력을 고용,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가공해 수출하게 될 ‘도문 북한공업구’ 개발이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됨.
 - 연변인터넷방송은 도문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진서동 부주임을 인용, “지린(吉林)성과 연변주 정부로부터 북한 공업구 개발에 대한 초보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달 중 최종적인 인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방송은 단둥(丹東)에서 북한 인력을 채용한 선례가 있고 연변이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북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북한 공업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北, 쌀 수입 줄이고 값싼 옥수수 늘려(8/14,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량을 늘리면서 단가가 높은 콩과 쌀 대신 옥수수 등 단가가 낮은 곡물 비중을 많이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곡물의 t당 평균 수입 가격은 작년 372달러에서 올해 404달러로 8.6% 상승해 올해 전체 곡물 수입 비용은 작년 5천270만 달러에서 6천31만 달러로 14.4% 증가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은 이와 관련 “작년도 곡물 수입량 역시 평년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수입량을 더 늘렸다는 점은 식량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콩이나 쌀보다는 옥수수 등을 많이 구입한 것은 외화난에 따른 현상 같다”고 분석

■ 기타 (대내 경제)

- 대동군(平南)에 시멘트 생산기지 새로 건설 및 희천→향산(平北) 송전선공사 진행 보도(8/8, 평·중방)
- 모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김정일과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忠僕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 독려(8/10, 중통·민주조선)
- 北 ‘농근맹’ 중앙위 제63차 전원회의, 8.10 리명길(『농근맹』위원장/보고) 등 참가자 평양에서 진행(8/10, 중통)
- 北 ‘건설경제 및 기준연구소’(1961.8.7 창립), “지난 50년간 건설부문의 규정과 기준 연구제정 사업에서 성과 이룩” 자랑(8/10, 중통)
- 北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희천언제 인공호수에 10만 5,000여 마리의 치어 방류(8/10,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휴대전화 가입자 66만명 넘어”(8/1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6만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 전함.
- 북한 내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10일 내놓은 ‘2011년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6만6천517명임.
- 지난 3월 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3만여명이었고 이후 석 달 사이에 13만여명이 늘어나는 등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평양서 동명왕 전설 담긴 ‘기린굴’ 발견”(8/11, 조선신보)

-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최근 평양의 모란봉 부근에서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의 ‘기린굴’을 발견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일 전함.
- 조선신보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기린굴은 모란봉의 영명사에서 200m 떨어진 모란봉 바위 쪽에 있다”며 “굴은 무너져 형체가 약간 보일 뿐이지만 굴 앞에 ‘기린굴’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고, 이 바위는 글자의 마모상태를 봐서 고려시기쯤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태풍 9호 ‘미이파’에 의한 서해안지역 10여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8/9, 중통)
- 황해남도 100여동의 살림집들과 10여동의 공공건물들이 허물어지고 10여대의 전주 파손에 의한 전력공급 부분적으로 중단 및 2만3,000여 정보의 농경지 심한 피해 발생

2 대외

가. 일반

● 美, 北 해상포격에 ‘자제’ 촉구(8/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0일 북한군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포 사격과 관련, 북한에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포 사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함.
- 눌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며 “북한이 최근(북미간) 뉴욕회담 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작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
- 또한 이번 포 사격이 최근의 대화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언급,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함.

● “日방위백서, 北핵무기 소형화 가능 판단”(8/1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일본 방위백서’를 받아 11일 공개한 데 따르면 방위성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일본은 또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포격”이라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각각 표현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송 의원은 전함.
- 일본은 북한 상황에 대해 “예산의 15%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인구의 5%를 현역으로 동원하는 등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체제 문제 등으로 향후 체제 불안정성 고조가 예상된다”고 기술

● 美 “北식량문제 일차 책임은 정권”(8/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의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
- 그는 특히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을 끔찍한 고립에 빠뜨린 책임도 있다면서 “최고의 길은 북한 정권이 무역과 개방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촉구
- 놀런드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차 “여전히 평가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

● “美, 北에 문화유적 보존지원 제안”(8/1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북측에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기술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
- 이 방송은 지난달 28~2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각각 단장으로 열린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북핵·관계 정상화 등 주요 현안 논의 외에 양국 간 악화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 지원 의사도 전달했다고 전함.

나. 6자회담(북핵)

● 中·日 수석대표, 6자회담 재개 협의(8/11,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1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
- 그는 우 특별대표와 두 시간에 걸쳐 만찬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오늘 회동에서) 우 대표가 말한 것이나 내가 답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을 다물었으며, 일본과 중국, 두 나라 수석대표 회동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른바 ‘3단계 프로세스’ 가운데 남북대화(1단계)와 북미대화(2단계) 이후 성사된 것임.

3 대남

● 北 연평도 인근 해상포격..군 대응사격(8/10, 연합뉴스)

- 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연평도 동북쪽 해상으로 포 사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께 북한 황해남도 용매도 남쪽 해역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추정되는 3발의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그 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오후 2시께 K-9 자주포 3발을 대응사격했다”고 말함.
- NLL 부근으로 향한 북한의 포 사격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군은 대응사격 직후에 연평도 주민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으며 우리 군과 주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 합참 관계자는 “오후 1시25분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경고통신을 하고 이후 대응수준을 정했다”면서 “함정 근처에 가해진 위협이면 즉각 조치했겠지만 NLL 선상까지만 왔기 때문에 우리도 NLL 쪽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임.

● **軍, 백령도 인근서 北선박·주민 구조(8/12, 연합뉴스)**

- 군 당국이 지난 11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 위기에 처하거나 표류 중인 북한 선박 3척과 주민 7명을 구조해 이 가운데 3명은 돌려보내고 4명은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2일 “어제 오후 7시12분과 오후 9시30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침수로 침몰 위험에 처한 전마선(소형 배) 2척을 발견해 배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다”면서 “전마선은 선원 구조 후 침몰했다”고 말함.
- 군은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백령도 인근 NLL 이남 지역에서 표류 중인 동력 목선을 발견, 연료를 제공해 12일 오전 2시38분께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NLL 남쪽 4.5km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돌려보낸 선원들의 귀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의도적 침범이 아닌 어선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돌려보내도록 한다”면서 “여러 척이 월선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함.

■ 기타 (대남)

- 北 「판문점」 대표부, 韓美 ‘UFG 합동군사연습’ 예정 관련 “조성된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美韓 당국에 원칙적 요구를 제안 한다”며 ‘훈련중지’ 요구 韓美에 ‘공개서한(8.7)’(8/8, 중동·중·평방)
- 美-韓 당국은 이번 UFG 연습 중지로 ①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②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실천적 용단과 ③ 조미관계,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해야 함.
- 南北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8.10 ‘연평도 해상포격’ 관련 “정상적 발파소리를 ‘포사격 도발’로 날조하여 연출해 낸 모략소동”이라며 “포사격 사실否認” 기자회견(8/11, 중동·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15-8.21

8 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일, 메드베데프 러대통령에 축전(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축전에서 “조선 해방 66주년에 즈음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러시아 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관계가 두나라 인민들의 공동 이익과 염원에 맞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北 “8·15는 김일성조선·민족 기원 열린 날”(8/15, 노동신문)**
 - 북한은 광복 66주년을 맞은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덕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데 주력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후손만대에 빛내어나가자’라는 사실을 통해 김 주석의 항일운동과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오늘은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조국해방의 날, 사회주의조선의 새 기원이 열린 날”이라며 “우리 조국이야말로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라고 밝힘.
 - 또 “백두의 혁명전통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피줄기로 생명선으로 끊 없이 이어나가야 한다” 등을 언급,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대한 충성을 간접적으로 강조

- **北김정일 “평북道 자본주의 날라리판”..통제강화(8/1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가 주민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통제강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은 이에 따라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는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탈북 방지용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강하는 한편 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으로 알려짐.
- 16일 북한 소식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지 주민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에 대해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검열을 지시
- 실제 북한 공안기관과 중앙당은 ‘남한풍’ 등 외부 사조 유입을 김정은 후계 구도의 위해요소로 지목했으며, 외부사조 확산이 북중 국경지역이나 해외 파견 근로자(공관원, 상사원 등)에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전언
-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은 “7월 초 대규모 중앙검열단이 평북지역에 파견돼 간부들의 사상문제와 주민의 사회주의 일탈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함.
- 중앙당과 공안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해 주민의 휴대전화, TV, 라디오 사용과 숙박실태 등에 대한 검열에 들어갔으며, 국경경비대나公安요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검열을 시행하고, ‘내부 간첩 색출’을 내걸고 특별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을지연습 비난…“핵억제력 질량적 강화”(8/17, 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잇달아 발표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의 강화 당위성을 밝힘.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야합해 별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이에 대처해 우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또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우리의 핵무기를 탐색해 파괴하는 사명을 지닌 ‘특별행동부대’라는 것을 참가시킨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라며 “조성된 사태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강도적 방법으로 우리의 핵억제력을 빼앗아낼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관련기사]

- **北, 김정일 방러 확인…과거 방문 일화 소개(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 각하의 초청에 의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원동(극동)지역을 비공식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힘.
 - 그러나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러시아 방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한편 중앙통신은 과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담은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나날에 남기신 일화’를 19일부터 연재하기 시작

- **김정일 러 도착…“23일께 정상회담”(8/20, 연합뉴스; 프리마미디어)**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일 200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크렘린궁은 짙막한 성명을 내 김 위원장이 이날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김 위원장이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
 -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연해주 지역에 이어 극동 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아무르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이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러 양측간의 에너지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극동 지역 통신사인 프리마미디어는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나 다른 도시에 들르지 않고 곧장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된 울란우데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北, 김정일 수행 명단 공개…김정은 없어(8/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 명단을 공개
- 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태종수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오수용 함북도 당 책임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재 주러 대사, 심국룡 나훗카 총영사 등임.

● 김 위원장 방러 이틀째 극동 발전소 방문(8/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21일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를 지나 아무르주(州)의 부레이 수력발전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현지시간)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아무르주의 부레이 수력 발전소를 찾음.
- 극동 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는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함께 같은 노선을 통과하는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를 남북한에 제안하면서 전력 공급원으로 꼽은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임.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8.17 離任 노르웨이 駐北 대사(‘디드리크 틴쎄트’)와 담화(8/17, 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820호(8.16字)’,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3개 단위)·‘2중3대혁명붉은기’(13개 단위)·‘3대혁명붉은기’(56개 단위) 수여(8/21, 중방)

나. 경제

- **국제사회 대북지원 급증…7월말까지 작년 2배(8/16, 미국의소리(VOA))**
 -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이뤄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작년 전체 지원액의 배 가량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인도지원사무국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4천55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대북지원액(2천480만 달러)의 183%에 달함.
 - 특히 올해 식량 지원은 작년(1천170만 달러)보다 2천100만 달러 늘었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 영양 지원, 낙농제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방송은 전함.
 - 국가별로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1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이 1천400만 달러, 스웨덴 740만 달러, 스위스 400만 달러, 노르웨이 250만 달러 등이었으며, 미국은 지난해 민간단체를 통해 6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아직 지원하지 않음.

- **中단둥, 올해 北무역탄 수입량 9배 증가(8/16, 중국국문시보(國門時報))**
 - 올해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지난해보다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6일 중국국문시보(國門時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동강(東港)항구를 통해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이 81만 6천700t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77만 달러(118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물량은 9배, 금액은 10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힘.
 -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아져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北 외화벌이 무역회사·기관 200여개”(8/17, 연합뉴스)**
 - 북한이 대외적으로 밝힌 외화벌이 무역회사나 기관이 총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발행하는 ‘Foreign Trade’라는 잡지를 분석한 결과, 외화별이에 나서는 북한 무역회사나 기관이 총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대북제재에 따라 대외무역 등에서 회사나 기관의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또 상당수는 북한의 내각이나 군 등에 소속된 회사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정부 당국은 북한의 외화별이 주체를 크게 내각, 군부, 합영투자위원회, 대풍국제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러 무역회사나 기관이 대체로 이들 네 그룹에 속해 외화별이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

● 中, 北에 의료진 파견..의약품도 지원(8/17,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 무상 진료에 나서는 한편 100만 위안(1억6천만 원)어치의 의약품도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일 평양 중앙약품관리소에서 중국 위생부가 북한 보건성에 지원하는 의약품 기증식을 했다고 밝힘.
- 중국은 의약품 지원과 함께 지린(吉林)성 위생청 허우밍산(侯明山)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의료진을 파견, 북한 주민에 대한 무상 진료도 제공
- 이에 관화빙 대표는 “의료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조선(북한) 주민의 건강과 양국의 우의 증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대북지원 분배현장 모니터링 사실상 수용(8/18,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분배현장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8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지난 3~6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방문, 밀가루 분배현장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동영상 등을 통일부에 제출
- 이번 모니터링은 통일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정부에 제출하기는 처음임.

- 정부는 특히 우리 측이 지정한 장소를 포함한 여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수혜대상과 인원 등 분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출토록 민간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이달 3~6일 관계자 6명이 방북해 현장 모니터링을 한 민화협 측은 “(까다로운 수준의 모니터링이었는데)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전했으며, 정부도 북한이 까다로운 모니터링을 허용한 데 대해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

● “北, 올해부터 유연휘발유 판매”(8/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올해부터 인체에 해가 적은 유연휘발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청정연료와 무공해차량 파트너십(PCFV)’ 소식지를 인용해 18일 전함.
- 이 소식지에 따르면 PCFV는 최근 북한을 유연휘발유와 무연휘발유가 함께 판매되는 이중체제 국가로 분류했으며, 또 PCFV는 북한측 초청으로 올해 1월24~26일 평양에 들어가 북한 당국자 35명을 대상으로 유연휘발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교육함.

● “北, 에너지수입국 다양화…중의존 탈피 모색”(8/18, 미국의소리(VOA))

-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톰 낸토 박사는 최근 발표한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증가하는 의존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외에 인도와 이집트 등에서 정유 수입을 늘렸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해 인도로부터 3억3천만달러 어치의 정유를 수입했고 북한 내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2억6천500만 달러의 정유를 수입했으며, 실제 북한이 지난해 두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는 5억9천500만 달러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4억7천900만 달러보다 많음.
- 낸토 박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게 된 것은 정치적 이유”이라며 “과거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했을 때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억7천900만 달러 어치의 정유를 수입했지만 3억9천700만 달러 가량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고 2억5천만

달러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신 조개류 등 7천900만 달러 어치의 수산품과 과일류 등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 **美, 北수해복구 90만弗 긴급 지원(8/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8일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에 90만달러(한화 약 9억6천700만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복수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최고 9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그러면서 “이번 긴급 지원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적 모니터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긴급 지원을 지지한다”고 설명
- 국무부는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관련) 정치, 안보적 우려는 구분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고 강조
- 미국의 대북지원 발표는 지난달말 뉴욕에서 1년7개월만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려 그간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을 협의한데 이어 나온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달초 수해가 발생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 등 50억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수해 지원이 남북, 북미간 대화 재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북러, 나진-하산 철도 12.8km 현대화 완료”(8/21,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의 철도 현대화(개보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국교통연구원은 러시아 경제개발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의 러시아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중순까지 나진-하산 간 52km 철로 가운데 12.8km 구간의 개보수가 마무리됐고 현재 두만강역, 웅상역 등 8개 철도역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힘.
-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철도당국은 현재 나진-하산의 화물열차 운행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현대화된 철로에서 화물

열차 운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나진-하산의 철로 개보수를 비롯한 TSR-TKR 연결 사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라선 투자 외국인 법적 보호” 강조(8/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연길(延吉)에서 열린 ‘두만강 학술 포럼’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철웅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투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라선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북한의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08년에는 외국인 투자가나 라선지대에만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법’과 ‘합법법’, ‘라선지대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됐다고 설명
- 또한 그는 북한은 헌법과 개정된 법률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 몰수나 국유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몰수 또는 국유화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
- 라선에 투자한 외국인의 원금과 이윤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합법적인 거래에 의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재산의 자유로운 해외 송출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점도 강조
- 이에 북한이 중국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 라선지대 외국 투자가 보호 법률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수산성 양어관리국, ‘평양시 두단종어사업소 개건확장공사’ 등 “양어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 보도(8/16, 중통)
- 平南 증산군 평원군과 남포시 등 서해안지대에 “성능이 개선된 풍력발전기 도입”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7가지 천연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자랑(8/17, 중통·중방)

다. 사회문화

● 北 “아리랑 누적 관람객 1천만명 넘어”(8/15, 평양방송)

- 2002년 시작된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의 누적 관객수가 1천만명을 넘었다고 평양방송이 15일 전함.
- 평양방송은 이날 “첫 공연 이후 근 10년 동안 300여 차례 공연이 개최됐고 외국인 10만여명을 포함해 1천만여명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이어 아리랑 국가준비위원회 소속 유춘일은 이 방송에 “2012년까지 ‘아리랑’을 보다 새로운 예술적 화폭으로, 강성대국의 국보로 창작·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함.

● 北젊은층에 ‘소녀시대’ 춤바람(8/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한국 노래와 춤이 유행하면서 한국의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의 춤을 가르치는 강사까지 등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북한을 수시로 오가는 한 중국인 무역상은 이 방송에 “얼마 전 한 부유층 여성으로부터 한국 댄스그룹 ‘소녀시대’의 CD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평양 중구역이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10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디스크를 출 줄 모르면 아이들 축에 끼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북한의 ‘춤바람’ 분위기를 전함.
- 이 무역상은 최근 북한 부유층은 자녀들에게 손풍금(아코디언)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보다는 춤과 노래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함.

● 北 환경보호법 개정…재생에너지 개발 의지(8/18, 연합뉴스)

- 북한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의 내용을 환경보호법에 추가했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총 4장 50조로 된 ‘환경보호법’의 제3장에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 실시, 재(再)자원화 기술도입과 관련해 각각 제38조, 제39조, 제40조를 추가했으며, 또한 제4장에는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내용이 담긴 제44조, ‘환경실태장악’과 관련된 제48조를 추가
- 중앙통신은 법 개정 소식과 함께 “각 기관과 기업소, 단체들이 이런 법규

에 기초해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올해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는 선진국들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수력발전소와 평양방직공장 등 8곳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예상강 3·4·5호 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4곳에 대한 자격심사(Validation), 나머지 5곳은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테마공원 개선청년공원에 압표 등장”(8/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4월부터 북한 주민에게 개방된 평양 개선청년공원이 압표상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개선청년공원은 남한의 롯데월드, 용인 에버랜드와 비슷한 놀이공원으로 수십m 높이의 자이로드롭(급강하탑), 배모양의 바이킹(배그네) 등을 갖추고 있음.
- 한 북한 주민은 RFA와 인터뷰에서 단체 입장객의 경우 1인 입장료가 300원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함.
- 그러나 점차 개별적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이 많아지고 데이트 하는 젊은 이들이 몰리면서 공원 앞에 압표상이 등장했고 1장에 3천원까지 하는 압표를 팔고 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中 의료봉사 대표단, 8.10~19 咸南 정평군 인민병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진행(8/19, 중통)
- 김일성상 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 8.19 咸南 함흥대극장에서 진행(8/19,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 10년 도피 中 밀수업자 검거 송환(8/15, 법제일보)

- 북한에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중국인 밀수업자가 북한 당국에 검거돼 중국에 인도되었다고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 인터넷판이 전함.
- 15일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변경부대가 지난 11일 지명 수배 중인 중국인 류(劉, 53)모 씨를 북한으로부터 인계받음.
- 단둥 변경부대는 이달 초 류씨가 10년 전인 2001년 북한으로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북한 당국은 최근 류씨를 체포, 중국에 인도했으며, 랴오닝 공안당국이 북·중 공안기관 공조를 통해 중국인 범죄 용의자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제일보는 전함.
- 북한이 류씨를 중국에 인도한 것은 양국이 맺은 ‘변경지역과 국가 및 사회안전질서 보호를 위한 상호 합작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중국은 이 규정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검거되면 북한으로 이송하고 있음.

● 리더통령, 北에 ‘3국 가스·철도 협조’ 당부(8/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광복 66주년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우리는 가스화와 에네르기,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에서 조선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프로젝트 등을 3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협조의사를 밝힌 내용이 공개되기는 처음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가스공급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남북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즈프롬, 북한의 원유공업성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북한이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으로 공급되는 가스의 경유지 역할로 거액의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 대안 중 한가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美한인단체 “이산가족상봉 대비 실태조사 예정”(8/16, 미국의소리(VOA))**

-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의 모임인 ‘미국 한인 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6일 전함.
- 이 위원회의 이철우 이사는 북미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수와 나이, 성별, 북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 이 이사는 최근 미 연방하원 찰스 랭글(민주.뉴욕)의원의 보좌관을 만나 미 연방정부의 북한인권법 관련자금을 이산가족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 이철우 이사는 “북미간 이산가족상봉 추진에 양국 정부 이외에 미국 적십자사도 관여하고 있다”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함.

● **美 “을지연습은 방어적연습..北자제해야”(8/19, 연합뉴스)**

- 미국은 18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해마다 반복해 온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을지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을지연습은 사전에 계획된 연습”이라면서 “결코 도발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며, 투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밝힘.
-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북-미, 미군유해발굴 재개 회담 합의(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 측은 해당경로를 통해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기하는 공식편지를 우리 측에 보내왔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국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이어 “현재 조미(북미) 쌍방 군부들 사이에 회담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 간 북한에서 33차례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22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한 상황임.

■ 기타 (대외 일반)

- 인도네시아 독립 66돌 관련 “지리적 위치, 풍부한 자원 등 정치·경제·문화” 등 상세한 소개와 ‘연대성’ 표시(8/17, 중통·노동신문·중앙)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나스리 구스타만’), 8.17 自國 독립 66돌 즈음 박의춘·박길연(외무상·외무성 부상)·박근광(黨 부부장)·전영진(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등 초청下 연회 개최(8/17, 중통·평방)
- 김영남, 8.17 離任 노르웨이 駐北 대사(‘디드리크 틴쉴트’)와 담화(8/17, 중통·중앙)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8.19)】 美國의 ‘美軍유골발굴회담’ 제안 관련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北-美 군부間 회담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8/19, 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김성환 “대북입장 이전보다 달라진 것 사실”(8/17,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이전보다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접촉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선(先)사과를 요구한 정부의 입장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100% 그렇다(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답변

- 그는 “6자회담과 천안함이 100%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북한 비핵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런 관점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북한이 얼마나 선(先)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
- 그는 다만 ‘6자회담이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다”고 일축
- 김 장관은 남북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북한도 ‘비핵화회담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전망하기 쉽지 않다. 낙관하지는 못한다”고 답변

3 대남

- **민화협, 개성서 4차분 밀가루 200t 北에 전달(8/17,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7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200t(약 1억원 상당)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 민화협은 사리원시에 그동안 밀가루 1천t을 지원했고 9월 말까지 1천500t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
- **李대통령 임기후반 국정기조 ‘공생 발전’(8/15,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철학의 ‘키워드’는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한편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매우 짧게 언급
 -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과 북핵 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교착 상태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려웠던 고민이 묻어있는 대목이라고 뉴스는 전함.
 - 이에 김두우 수석은 “나온 것들을 진전시키는 것도 원만하지 않은데 지금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함.

● 통일부 “추석계기 이산상봉 제의계획 없다”(8/17,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측에 먼저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같은 언급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임.
- 이 당국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우리가 먼저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설명
- 통일부는 그러나 북측이 먼저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해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우리가 먼저 상봉 제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 인도주의적 문제인 만큼 북측이 성의를 보이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

■ 기타 (대남)

- 李大통령의 光復節 경축사를 “위정자로서 66년간 분단된 민족적 비극에 철학적 고찰과 책무라곤 제시하지 못하고, ‘G-20·동계올림픽 유치·K-POP·한류’ 등 自畫自讚만 늘어놓은 말장난의 극치”라고 비난(8/19, 조선신보)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22-8.28

8 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총리, 평양-남포 구도로 개건공사 현지 요해(8/22,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가 평양-남포간 구도로 개건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회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최 총리는 공사장을 돌아보고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협의회를 진행했으며 협의회에서는 공사를 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는 문제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관련기사]

- **김정일, 동부 시베리아 울란우데 도착(8/23,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각)께 부라티야 자치공화국 주도인 울란우데 기차역에 도착해 바체슬라프 나고비친 공화국 대통령과 마트베이 게르세비치 공화국 의회 의장, 겐나디 아이다예프 울란우데 시장 등의 영접을 받음.
 -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진행된 영접 행사가 끝난 뒤 특별열차에 싣고 온 메르세데스 승용차를 타고 현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울란우데에서 서북쪽으로 약 170km 정도 떨어진 바이칼호 동쪽 호숫가의 '투르카 마을'을 찾았는데, 바이칼로 흘러들어 가는 작은 강가에 있는 투르카 마을은 현재 관광 중심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울란우데 시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시 외곽에 있는 항공기 제작공장 '아비아 자보드'를 방문했는데, 아비아 자보드는 소련 시절인 1930년대 말부터 수호이와 미그기 등의 전투기와 Mi-8, Mi-171 등의

헬기를 함께 생산해온 유명 항공기 제작 공장임.

- 한편 김 위원장은 항공기 제작 공장 방문을 마치고 울란우데 역에 세워진 특별열차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낸 뒤 24일 오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러 대통령 “北, 6자회담 무조건 재개 합의”(8/24, 연합뉴스)

- 24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열린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나탈리야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티마코바는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면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3자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부연하면서 “가스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약 1천100km의 가스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 가스관을 통해 매년 100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北, 북러정상회담 전해…“6자 재개·경협 합의”(8/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경제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이어 중앙통신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등 경제 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의제들이 상정돼 그와 관련한 공동인식이 이룩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그룹들을 조직 운영하며 두 나라가 이 방향에서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임.
- 또 회답에서 김 위원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함.
- 이날 회답에는 북한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당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재 주러 대사가, 러시아측에서 세르게이 프리호디코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과 빅토르 이사예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빅토르 톨로콘스키 시베리아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 이고리 레비틴 교통장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 대사 등이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일, 남한行 가스관 北통과 허용”(8/26, 인테르팍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가스관이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6일 밝힘.
- 이사예프 전권대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시로 20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특별열차를 함께 타고 끝까지 그를 수행했던 인물로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전권대표부가 있는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현지 기자들과 한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러시아와 남한이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면 북한은 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해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북한은 그러나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한 컨소시엄에는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가스 통과와 영토 임대 때 따른 수익만을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이사예프는 김 위원장과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2km 철도 구간 보수 공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현재 러시아 철도당국이 추진하는 보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김 위원장은 또 방러 기간 중 극동 지역에 북한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방안과 러시아 주요 도시에 북한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이샤예프 전권대표는 전함.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訪中) 관련기사]

● 김정일, 방러 후 귀국길 中 경유(8/25, 연합뉴스)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후 네이명구의 국경도시 만저우리(滿洲里)를 통해 중국으로 진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러시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서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으로 왔으며,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만이라고 뉴스는 전함.
- 일단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귀국일정 단축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 간에 긴밀한 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아울러 빈번한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가 여전히 긴밀하고 공조체제가 공고하다는 점을 양국 국민과 주변국에 보여주려는 계산도 중국 경유 노선을 택한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

● 왕자루이, 네이명구 도착 김정일 영접(8/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러시아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극동지역) 방문을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네이명구 자치구를 방문했다”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국경역인 네이명구 만저우리(滿洲里)에 도착했다”고 보도
- 김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만저우리역에 도착했 을때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대외연락부장,성광주(盛光祖)철도부장,후춘화(胡春華)네이명구당서기,후룬베이얼(呼倫貝爾)시서기와시장등이영접했다고중앙통신은전함.

- 이명구 방문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박도춘·태종수 당비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오수용 함북 당 책임비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리기범 주선양 북한총영사 등이 수행

● **김정일, 中 치치하얼서 산업시찰(8/26, 연합뉴스;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 이틀째인 2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을 찾아 산업시설을 시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치치하얼은 동북 지방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 일행이 산업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이례적으로 방중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북지방을 경유 겸 순방할 것”이라고 보도

● **김정일, 다칭서 다이빙귀와 회동(8/2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26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영빈관에서 중국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은 다이빙귀와의 회동에서 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9.19 공동성명을 전면이행 하겠다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함.

● **김정일, 中지안 넘어 만포로 귀국(8/27,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7일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께 특별 열차 편으로 중국 지안(集安)을 통과해 귀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하루 전날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께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시를 출발해 3시간 후인 오후 11시께 하얼빈(哈爾濱)을 무정차 통과하고서 남하해 이날 오전 통화(通化)시에 상

당시간 정착했으며, 김 위원장은 통화사에서 북한 고위층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직후 중국 경유를 선택한 것은 귀국 여정을 1천500km가량 단축함은 물론 중국 측에 러시아 방문 결과를 즉각 ‘디브리핑(사후설명)’하는 절차를 가짐으로써 북중 간의 ‘탄탄한’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김정일 귀국 보도…김정은 국경서 마중(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2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귀국한 27일 후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을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국경역으로 나와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8.23 러시아연방 부랴티야공화국 방문(8/24, 중통·중방)
 - 지도간부들과 담화, 首都 울란-우데 등 참관 및 씨비리지역 여러 민족들의 풍습과 생활 了解, 바이칼호 방문, 대통령 주최 오찬참석 및 예술소품공연 관람
 - 대통령(‘바체슬라브 나고비), 인민후탈 의장(‘마프베이 게르셰비치), 씨비리연방주 주재 대통령 전권 대표부 부랴찌야공화국담당 연방책임시찰원(‘세르게이 실린’), 부상 겸 대통령 및 정부행정부 책임자(‘뽀뜨르 노스꼬브’) 등 영접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등 수행간부 30명 동행
- 김정일, 8.24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 및 담화(8/25, 중통·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김양건(당 비서), 김계관(외무성 제1부장), 김영재(駐러 北대사)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박의춘, 8.24 작별 방문한 駐北 가봉대사와 담화(8/24,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러 정무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을 만나 담화(8/26, 중통)
- 김영남·최영림·김기남 등 黨·政 책임일꾼들, 8.28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기업소에 나가 청년들 축하(8/28, 중통·중방)

나. 경제

- “美NGO도 北수해복구에 90만달러 기부”(8/22,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대북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가 자체적으로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의 수재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이 단체는 북한 강원도와 황해도에 이불, 임시천막 설치용 자재, 위생용품 등을 보내고 분배모니터링을 위해 직원들을 북한에 직접 파견할 계획
- 北, 대북단체에 개성·안주 수해지원 요청(8/22, 연합뉴스)
 - 북한이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개성과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민협에 따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지난 20일 팩스를 보내 “우리의 큰물(홍수)피해를 돕고자 귀측이 제안한 내용을 상비(상의)해봤다”며 “개성은 크게 피해를 입은 곳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성이 여의치 않으면 평안남도 안주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힘.
 - 북민협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수해지원 품목을 놓고 정부와 협의해 추석 이전에 지원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 품목과 지역 등을 놓고 승인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밀가루 등 식량은 수해지원 물자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 “러, 내달 라진항 3호부두 개조 착수”(8/22,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3호 부두의 개조공사를 이르면 내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연길(延吉)의 한 소식통은 22일 “러시아가 라진항 3호 부두와 라진역-라진항 인입 철도 보수 공사에 착수하기로 북한과 최근 합의했다”며 “이르면 내달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또 라진역에서 라진항으로 연결되는 3.8km 구간의 철도 인입선 보수 공사도 함께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 한국교통연구원은 21일 러시아 당국 등의 발표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하산-라진 간 52km 철도 구간 가운데 12.8km 구간의 개보수가 마무리됐고 현재 두만강역, 웅상역 등 8개 철도역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대북 전문가들은 그러나 하산-라진 철도 개보수에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라진항을 이용할 러시아 물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호 부두의 본격적인 가동은 빨라도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北, 이달말 금강산특구 시범여행 실시(8/22, 연합뉴스)**

- 북한이 해외기업과 주요 언론매체들을 초청해 금강산특구 시범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시범여행은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 라선특별시인민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집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측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북측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투자기업인과 관광회사 등의 관계자 수십명과 중국 내 동북3성 대표단, 그리고 미국의 AP,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아사히신문, 홍콩의 봉황TV, 중국의 환구시보와 CCTV, 동북3성의 흑룡강신문·요녕신문 등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이 준비한 금강산 시범여행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6일 일정인데, 구체적으로 중국 연지를 출발해 훈춘을 거쳐 북한 라선으로 들어가고, 라선에서 배편으로 금강산 장전항으로 향했다가 다시 같은 배편으로 라선을 통해 귀환하도록 짜여 있음.

● **“북한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 10조4천억弗”(8/23, 연합뉴스)**

- 최근 광물 가격 상승으로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가 지난달 현재 기준으로 2009년에 비해 39.3% 증가한 10조4천억 달러로 커졌다는 추정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민간 연구소인 북한자원연구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한은 같은 기간 44.5% 증가한 4천7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덧붙임.
- 연구소는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북한의 자원별 매장량에 2009년부터 1년간의 시세변화를 적용해 잠재가치를 계산함.

- 주요 광물별로 보면 북한의 금 잠재가치는 1천346억8천700만 달러로 남한(20억2천500만 달러)의 67배였고, 철광석은 7천946억7천700만 달러로 남한(59억8천600만 달러)의 133배였음.
- 북한에서 가장 잠재가치가 높은 광물은 석탄으로 3조4천802억2천만 달러였고, 마그네사이트와 석회석 등의 순으로 잠재가치가 높을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
- 또 북한 우라늄은 163억300만 달러로 남한의 38억2천800만의 4배에 달함.
- 다만, 정부가 최근 수요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희토류의 경우 북한의 잠재가치는 442억1천100만 달러로서 958억7천2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남한에 비해 오히려 낮았는데, 연구소는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서야 희토류 자원에 대한 탐사를 시작해, 밝혀진 매장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

● **北 나선서 투자토론회 개최(8/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23일 투자토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기업창설 및 경영규정과 같은 투자환경 소개와 영상물 시청 등이 진행된 토론회에는 제1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참가자와 투자상담을 위해 나선을 찾은 외국인들이 참가
- 리주일(46) 나선시인민위원회 경제협조국 국장은 “최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제도적·법률적 기초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북한)는 외국기업들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거래를 보다 강화해 나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 원산서 대북사업 점검”(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21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식량지원 등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WFP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WFP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함경남도 함흥의 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혼합식품의 분배 상황을 점검
- 회의에는 WFP 본부와 평양,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북한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리비아내 北근로자 200여명 정상근무”(8/24,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 반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는 리비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관계자는 이날 “리비아 내 북한 근로자는 의사, 간호사, 건설노동자 등 200여명이 되는데 아직 북한에 돌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또한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리비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주요 도시가 아닌 사막이나 외진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러, 北 김정은에 국제정보 교육 제안”(8/24, 산케이신문)**
 - 러시아가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국제 정보 교육을 위한 정보기관원 파견을 제안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정보 당국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교섭에서 김정은에게 국제 정세를 교육하기 위해 대외정보국(SVR)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제안
 - 신문은 “북한 측도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면서 “일국의 지도자 후보가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직접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경험이 없는 김정은을 조속히 국가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분석
 - 한편 김정은에 대한 국제 정보교육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北, 舊 소련에 110억弗 채무”(8/24, 인테르팍스통신)**
 -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진 약 110억 달러(약 11조9천억원)의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토르차 러시아 재무차관이 24일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스트로차 차관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린 올란우데에서

- 기자들에게 “110억 달러는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당시 북한에 제공된 자금은 1달러당 60코페이카(100분의 1루블)의 환율로 지급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 루블화 재계산 방법과 채무 지불 순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임.
- 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옛 소련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우선 북한이 러시아를 소련의 승계국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그는 “먼저 북한에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채무액 산정을 위한 계산법에 대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06년 옛 소련에 대한 북한의 채무액을 80억 달러로 산정했었는데, 북한의 대(對) 러시아 채무가 이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상환 지체에 따른 벌금 부과 때문이라고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설명

● “프랑스, 北에 14만달러 식량 추가지원”(8/25,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외무부가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 14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방송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 관계자를 인용,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9월 초부터 함경도와 황해북도 내 학생 2천850명과 교사 726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고아와 장애인에게 쌀, 옥수수, 콩, 콩기름 등 3개월치 식량을 지원할 계획

● 북-러 제5차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8/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제5차 회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의 북측 위원장인 리용남 무역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발전상이 의정서에 서명
- 중앙통신은 그러나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의정서에는 지난 24일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러시아와 남북한 등 3개국 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철도 연결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됨.

기타 (대내 경제)

-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8.22 조정호(라선시 인민위원장/전시회 조직위원장), 청진駐在 中·러시아 총영사 등 참가下 진행(8/22, 중통)
- 중국, 러시아, 호주, 이탈리아, 미국, 대만의 110여 단위에서 전기 및 전자, 경공업, 식료 및 의약품, 운전기재 등 출품

다. 군사

● 中량광례, 北과 군사관계 강화 약속(8/26, 신화통신)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26일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단장으로 방중한 북한대표단을 만나 양국 군사관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량 국방부장은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 군사관계 증진을 위해 더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북한 측 전창복 후방총국장은 “북중 군 간의 지원이 양국 우호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며 “북측은 국제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양국 국민과 군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
- 북한 대표단은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25일 랴오시룽(廖錫龍) 중앙군사위원회 겸 인민해방군 총후군부장을 만남.

라. 사회·문화

● 적십자 “北 홍수로 이재민 2만9천 명 발생”(8/22, 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은 22일 최근 3개월 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와 태풍으로 2만9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적십자는 북한 지역 남부와 남서부에서 발생한 홍수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집을 잃었으며, 약 7천50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식량과 식수, 대피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 적십자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임.

- **평양 순안공항 현대식 새 터미널 개관(8/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이 지난달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 터미널을 완공해 운영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새 터미널은 수하물, 세관 통과, 출입국 관리 등 현대식 시설을 갖췄고, 북한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과 항공 노선을 하나둘씩 개설해왔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은 지난달 초 순안공항과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국제공항 간 직항노선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평양과 중국 시안(西安)을 잇는 전세계 직항노선의 운항도 시작

- **“北 수해로 급성영양실조 10% 증가”(8/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6일 “북한에서 수질이 악화해 마실 물이 없어 수해지역 주민 가운데 급성 영양실조 발병이 10%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이 기구는 또 “북한에서는 올해 홍수로 설사병 발병이 40% 늘었고 결핵 감염도 20% 늘어났다”며 식수와 위생 분야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피서객 북적이는 북한판 ‘캐러비안 베이’(8/28,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평양시에 있는 만경대물놀이장 사진 40여장을 게재
 - 만경대물놀이장은 2009년 8월 조선중앙TV가 바닥포장과 건물·구조물·설비 도색작업 등 보수공사를 거쳐 새로 단장했다고 보도한 평양의 야외 수영장임.
 - 이에 북한 매체가 그동안 주민의 물놀이 사진을 몇 장씩 내보낸 적은 있었지만 한꺼번에 40여장이나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특히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한 내년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현대식 놀이시설을 부각한 것 자체가 흥미롭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여기에는 여가를 즐길 정도로 주민의 생활수준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2 대외

가. 일반

● 美 AP통신사 대표단 방북(8/23, 조선중앙통신)

-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23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존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AP통신사 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대표단은 평양에 머물면서 북측과 지국 개설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 톰 켈리 AP통신 사장은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유엔이 함께 개최한 ‘유엔-연합뉴스 보도사진전’ 뉴욕전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초에는 평양에 AP통신의 종합 지국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국이 개설되면 “취재와 사진기자 각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중국 의존도 줄이려 러시아에 접근”(8/23,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러시아 방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 르 몽드는 이날 도쿄발 기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면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 계획에 주목
- 르 몽드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대까지는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었으나 지금은 그 지위를 중국에 빼앗긴 상태라면서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美, 테러보고서 北항목 뒤늦게 추가(8/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항목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010 국가별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항목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북한이 명단에 올랐음.
- 수정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 미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됐다고 밝혀 3년째 지정 제외를 유지
 -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와 관련, 천안함 사태는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점을 들어 국제적 테러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과 요원 4명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북한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했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美 “北제안, 6자회담 재개에 불충분”(8/2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이 러시아 올란우테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핵실험 잠정중단 의사 등을 밝힌 것과 관련, “불충분하다(insufficient)”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실제로 그들(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6자회담을 재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함.
- 그는 “지난해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라면서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위반한 것이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
- 그러면서 “만약 그것(북한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첫 조치이나 충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재차 강조
- 또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에 언급,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그들의 목적은 우리와 같다”며 “북한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는 그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설명

● **日 언론 “북러회담서 6자회담 관련 진전 없어”(8/25,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 일본 매체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동안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고,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
- 아사히신문은 25일자 1면 기사에서 북러 양측이 한반도 관통 가스관 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측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 요미우리신문은 러시아의 한반도 가스관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거론하며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지원 카드’의 효과에 기대를 걸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적음.
-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실험 동결 의사를 표시한 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용해 6자회담 관련 대미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

● **北신문, 6자회담 복귀의지 재천명(8/27,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찬양하는 논평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친선의 연대기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 사변’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라며 “6자회담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24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두 나라 영도자들의 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해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두 나라의 원칙적 입장의 발현”이라고 평가

3 대남

- 北 “금강산 재산권 21일부터 법적처분”(8/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운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힘.
 -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돼온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남측을 비난

- 北 “금강산 재산권 침해 주범은 남측”(8/24,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4일 금강산 관광지구내 재산정리와 관련, 북한의 변호사까지 동원해 남측 사업자들의 재산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변호사회 소속 최중진은 이날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연단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금강산지구에 널려있는 각종 부동산, 설비 등을 비롯한 남측 사업자들의 재산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또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힘.
 - 그는 “신뢰와 화합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으로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재산권침해를 논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철두철미 금강산 관광을 파기해 오늘의 지경으로 끌고간 남조선 당국에 있다. 진짜 주범은 남조선 당국”이라고 주장

● 통일부 “北조치에 법적·외교적 대응”(8/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22일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북측 발표에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 시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천 대변인은 “북한이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재산과 인원들에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
- 천 대변인은 북측이 금강산지구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에 대해 72시간 안에 나가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대아산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이날 오전 현재 금강산지구 안에는 주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온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를 비롯해 총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으로 북측이 72시간 내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 14명은 오는 24일까지 귀환할 것으로 보임.

●李대통령 “김정일 러시아 방문 긍정 평가”(8/22,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중국 방문을 긍정 평가한 것과 이유가 같다”면서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개방된 사회에 가서 보면 결국 북한의 경제 발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

● 정부 ‘北금강산조치’ 관계부처 대책반 구성(8/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힘.
-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며, 첫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에서 열린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北지령 간첩단 ‘왕재산’ 적발…김일성 면담 (8/25, 연합뉴스)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위한 남한 내 조직을 구축해 활동한 반국가단체가 공안당국에 적발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검찰 등에 따르면 총책인 김씨는 김일성 주석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김 주석과 직접 면담해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유일 영도체계 구축, 김일성 부자 혁명사상·위대성 보급 등 5대 과업을 내용으로 한 ‘접견교시’를 하달받아 활동을 개시
- 김씨는 학교후배인 인천지역책 임씨와 대학동창인 서울지역책 이씨를 포섭해 각각 ‘관순봉’ ‘관상봉’이란 대호명을 받게 한 뒤 2001년 3월 ‘왕재산’이란 지하당을 구축해 암약해온 것으로 조사
- 북한은 2005년 간첩활동 공로를 인정해 유씨를 제외한 4명에게 노력훈장을 수여했고, 연락책 이씨는 국기훈장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힘.
- 이들은 또 조직원의 정치권 침투 지령을 받아 정치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으며, 특히 정당원으로 활동하던 서울지역책 이씨는 정치권 내 지위확보를 위해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

■ 기타 (대남)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8.22)】 “南 당국이 관광재개와 재산등록을 거부한 조건에서 특구법 제26조,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 선포(8/22, 중통·중방)
- 남측 부동산과 설비, 운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함.
-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함.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함.

8.29-8.31

8 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정은, 김정일 러·中 방문기간에 비상대기”(8/29,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러시아·중국 방문 기간에 그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공식 활동을 자제한 채 비상대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양국 방문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의 대화를 과시한 것”이라면서 “러시아 방문은 동맹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러시아 입장에선 경제적 실속을 챙긴 측면이 있다. 중국은 소통 차원에서 가서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난 것”이라고 분석
 - 특히 방러 결과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다”면서 “러시아는 ‘북핵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조건없는 6자회담을 얘기했다’고 하는 등 간격이 있으며, 러시아가 잘못 발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단 시간에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리를 짧게 한 것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고,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대해선 “주야로 쓰고 하는데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힘.
- 北, 김정일 외국순방 연일 대대적 ‘극찬양’(8/30,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30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귀환하는 길에 중국을 방문한 성과를 9천여자나 되는 상보로 내보내며 “조중(북중) 친선의 연대기 위에 빛나게 기록될 것”이라고 찬양
 - 또한 중앙통신은 같은날 속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과 함께 자신의 외국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특별공연에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잇따라 전함.

- 앞서 평양방송은 지난 28일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이라는 외국방문 기사에서 “우리에게는 천하무적의 강자이시고 연전연승의 역사만을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신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자발적 충성을 유도
-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처럼 북한이 김 위원장을 찬양하고 그의 외국방문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는 몇가지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
- 뇌졸중으로 한때 쓰러졌던 김 위원장이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칠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 등장 이후 권력이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엘리트 및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또한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방중에 이어 이번에도 국경으로 마중나간 것도 충성심을 내보이려는 행보로 보이며, 북한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외국방문 성과를 띄움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산증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총리, 함흥 주요산업시설 시찰(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함흥 지역의 주요산업시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중앙통신은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협의회에서는 조선의 기술과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완성하고 중요 대상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길데 대해서 토의했다”고 소개

● **“해군기지는 북침기지”…北 대남선동 강화(8/3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진중공업 사태 등 남측의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보수진영을 비난하는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등 전 매체를 동원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제주 해군기지를 “북침 전초기지·MD(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기지”라고 주장

- 또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시위와 관련, 이른바 ‘희망버스’가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지역주민의 시위 반대 움직임을 “보수단체의 매수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기사도 7~8월 10여 차례에 걸쳐 내보냄.
- 북한 매체들이 남측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각종 시위를 선동하는 주장을 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최근 관련 보도의 횡수가 잦고 다루는 대상이 다소 넓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고 대남선동을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

● **김정일, 희천발전소·용림군 현지지도(8/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리,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귀환한 직후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현장과 용림군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전천-용림언제(댐) 도로를 따라 희천1호발전소 용림언제에서 발전소 건설과 전천-용림언제 도로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건설장을 여러 곳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전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과업들을 제시했고, 수력발전소 건설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전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의 희천발전소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태종수 당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원홍 당 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또 희천발전소 인근 장자강 상류의 용림군에 새로 건설된 물놀이장, 용림군문화회관 등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독려
- 용림군 현지지도에는 김정은과 리영호 부위원장, 김영춘 부장, 장성택 부위원장, 김정각 제1부국장, 박도춘·태종수 당비서가 수행했고 김윤식 용림군당 책임비서와 류성국 용림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현지에서 영접

● “北, 통일장관 교체에 기대감 표시 안해”(8/31, 교도통신)

- 북한 당국자가 남한의 통일장관 교체에 대해 “후임자(류우익 통일장관 내정자)도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며 기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
- 김철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국 일본 담당 부국장은 31일 평양에서 교도통신 등과 회견을 열고 현인택 통일장관이 물러나는 데 대해 “후임자도 (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라며 “(통일장관 교체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김 부국장은 또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7월에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일본 전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송) 대사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사실 관계를 부정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건설장’ 현지지도(8/31, 중통·중방)
- 김정일, 자강도 ‘룡림군’ 현지지도(8/31,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외국방문 성과 축하 ‘공훈국가합창단 특별공연’ 진행(8/29, 중통)
 - 김정일, 김정은, 리영호,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리명수, 김경옥, 김명국,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김영철, 윤정린, 현철해 등 관람
- 黨 군사총·국방총, “김정일의 외국방문(러시아·중국) 성과” 축하연회 개최(8/29, 중통·중·평방)
 - 김정은, 리영호(축하연설),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경희,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리명수 등 참석
- 김정일 러시아방문 관련 “北-러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불멸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再次 극찬(8/30, 중통·노동신문)
- 최영림(내각 총리), 8.29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8/30, 중통·중방)

나. 경제

● 中업체가 北대동신용은행 경영권 인수(8/29, 연합뉴스)

-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합작은행으로 알려진 대동신용은행은 29일 홈페이지(www.daedongcreditbank.com)를 통해 외국인 지분을 중국의 세계 제조업체인 나이스(納愛斯) 그룹에 매각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대동신용은행 대주주인 피닉스커머셜벤처(PCV)는 성명에서 "(PCV가 보유한) 외국인 지분을 매각했고 외국인 이사진도 즉각 퇴진했다"고 밝힘.
- 니겔 카위 은행장은 "대동신용은행에 이어 2003년 북한내 두번째 합작사로 설립한 하나전자가 실적이 좋아 최근 본사 건물을 마련하고 영업망도 확충했다"며 "지난 16년간 이 은행의 실적이 좋았으나 하나전자 경영에 전념하려는 상업적인 이유로 지분을 넘겼다"고 말함.

● “美여행사, 금강산호텔 이용 관광상품 출시”(8/30, 미국의소리(VOA))

-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가 2012년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금강산호텔을 이용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
- 이 여행사는 보도자료에서 “내년부터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지구에 있는 금강산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현대아산이 소유한 금강산호텔은 북한이 지난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남측 자산에 포함돼 있어 외국 관광객에 개방될 경우 논란이 예상

● “남·북·러, 11월께 남북가스관 실무협상”(8/30, 연합뉴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남북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표는 이날 인천 ‘한나라 인천포럼’ 및 강원도 홍천 당원연수회 특강에서 “가스관 사업이 한·러시아 간에 합의됐고 북·러 간에도 합의돼 이제 3자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하면 남북가스관 사업은 이뤄진다”면서 이같이 말함.
- 홍 대표는 “11월쯤 되면 러시아 연해주의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을 거쳐 동해 지역으로 내려온다. 대공사가 시작된다”면서 “북한 입장에

선 가스관 통과비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이익금보다 많은 연간 1억 달러 정도 되며, 우리는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면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20~30% 싸진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가스관 사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으며, 일단 북한이 문을 열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10년 구상으로 추진해 온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25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 부담하는 문제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
- 홍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는 ‘쓰리 트랙’으로 움직인다”면서 “첫 번째는 북핵을 6자회담에서 풀다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문제로 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뤄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인도적 지원과 경협 문제”라고 밝힘.
-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 고칠 수 없지만 세 번째 트랙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은 이미 정부가 빗장을 풀었고, 경협 문제는 인도적 지원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웬더독’이란 말이 있듯이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함.

● “러, 하산-나진 철도로 北에 밀가루 지원”(8/30, 프리마미디어(PrimaMedia))

-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5만t의 밀가루 가운데 제2차 공급분이 9월 중 새로 보수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과 북한 나진항 구간 철로를 이용해 운송될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지역 통신인 프리마미디어(PrimaMedia)가 30일 보도
- 이와 관련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앞서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과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2km 철도 구간 보수 공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현재 러시아 철도당국이 추진하는 보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10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힘.
- 이샤예프는 그러면서 “9월이면 벌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식량이 하산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北 “나선-금강산 국제관광 시작, 만경봉호 출항”(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나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국제관광단의 해상관광이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나선시에서 나선-금강산 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의 출항식이 열렸다고 “4박5일 일정의 이 관광은 조선의 동북단 라선시에서 화객선 만경봉호를 타고 조선동해를 유람하면서 금강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세계에 이름난 구룡연과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일대 등을 탐승하게 돼 있다”고 전함.
 - 이번 시범관광에는 미국·러시아·유럽·중국·일본 등의 투자기업과 관광회사 관계자, 중국 동북3성 대표단, 미국의 AP와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영국의 로이터, 일본의 아사히신문, 홍콩의 봉황TV, 중국의 환구시보 및 CCTV, 동북3성의 흑룡강신문·길림신문·요령신문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기타 (대내 경제)

- 제1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에 출품(180여종, 3만여점)된 축전지(대동강축전지공장)·유기질복합비료(라선백석합영회사) 등好評 및 수출입계약체결 등 선전(8/29, 중통)
- 나선-금강산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 출항식’, 8.30 나선시에서 진행(8/30,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8.29 ‘희천발전소 대형물길굴 완공’에 관한 상보 발표(8/30, 중통)
- ‘北-러 가스수송관 건설계획’ 등 “조선반도의 에너지공동계획은 정치·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8/31, 중통)

다. 군사

- 체니 “모사드, 北-시리아 핵공조 정보 제공”(8/31, 연합뉴스)
 - 지난 2007년 시리아가 건설했던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 미국은 양국간 핵 협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체니 전 부통령은 30일 발간된 자서전 ‘나의 시대(In My Time) 개인적, 정치적 회고록’에서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최고 책임자가 백악관을 방문, 이런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직접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소개
 - 그는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6개월 만에 북한의

-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함.
- 이듬해 4월 중순 모사드의 메이어 다간 국장이 백악관을 비밀리에 방문해 스티브 해들리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에서 자신에게 시리아의 사막 지역에 있는 건물의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줬는데, 체니 전 부통령은 모사드가 시리아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로가 가스냉각 방식의 흑연감속로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외부로 노출된 전력선이 없는 것으로 미뤄 전력 생산용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함.
 - 특히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건설한 영변 원자로와 시리아의 원자로가 크기와 용량 등에서 거의 같다는 점에 놀랐으며, 북한이 당시 가스 냉각식 흑연감속로 원자로를 건설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의 관여를 사실상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
 - 그는 이와 함께 당시 미국의 정보당국자도 자신에게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은 199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1년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직접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힘.
 - 더욱이 모사드가 내놓은 자료 중에는 북한의 핵시설 담당자가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원자력에너지기구(SAEC) 책임자와 나란히 찍은 사진과 북한의 6자회담 대표단에 포함됐던 인사의 사진도 있었다고 소개
 -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로 인한 이익을 챙긴 뒤 또다시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했다”면서 “그들은 ‘벼랑끝 전술의 달인들(masters of brinksmanship)’이었다”고 평가

라. 사회문화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자연환경보호부문 과학기술토론회, 8.30 정영남(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부위원장/개막연설) 등 참가자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30, 중통)
- 北 고려의학과학원과 조선컴퓨터센터, 전국적 ‘원격고려의료봉사체계’ 확립 및 ‘고려의술’ 홈페이지 개설(8/31, 중통)

2 대외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10월 방북”(8/30, 자유아시아방송(RFA))
 -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이 대(對)북한 의원의외교를 위해 10월1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유럽연합(EU)의 마르셀 로이엔 한반도 담당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엘러 단장 이외에 누가 방북단에 포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리비아 과도정부 승인유보, 카다피 때문?(8/30, 연합뉴스)
 - 리비아 반군이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를 쫓아내고 출범시킨 리비아 과도정부의 승인 여부를 놓고 북한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 트리폴리 시내 주리비아 북한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각) 취재진이 리비아 반군 대표기관인 국가과도위원회(NTC)를 리비아 합법정부로 인정했는지를 묻자 “아직... 두고 봐야지”라고 짧게 답했으며, 이는 아직 NTC를 합법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고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란 뜻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정권과 카다피 정권은 그동안 나란히 ‘제국주의’ 미국에 맞선다는 기치를 내건 데다 정치체제상 독재정권이고 권력의 부자세습을 추진하는 등 공통점이 적지 않아 서로 ‘맹방 중의 맹방’으로 우대해 왔으며, 특히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해왔고, 리비아가 과거 핵개발을 추진했을 때 북한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음.
 -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카다피의 운명이 확인될 때까지는 NTC를 환영하는 입장을 낼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나, 맹방인 중국까지 최근 “리비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반군세력을 인정했고 대(對) 아프리카·중동외교에서 리비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국 과도정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이란 국회의장 4일 북한 방문(8/31, 연합뉴스)

-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이 4일부터 3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이란 의회 웹사이트가 지난달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웹사이트는 또 이란 국회의장의 이번 북한 방문이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라리자니 의장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중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소개

■ 기타 (대외 일반)

- ‘北-쿠바 대사급외교관계’ 수립(‘60.8.29) 관련 “反帝자주, 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쿠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연대성 표명(8/29, 중통·노동신문)
- 北 외무성, 8.31 ‘블랙볼가담운동’ 창립(9.1) 50돌 즈음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8/31, 중통)
- 박의춘 외무상, 各國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참가

3 대남

● 개성공단업체, 정부에 대출상환 유예 요청(8/31,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경영 악화로 정부에 대출금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31일 개성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기업대표자회의’는 지난주 후반 40여개 입주기업의 서명을 받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
- 기업들은 건의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업인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힘겨운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본 체력이 떨어져 존폐 위기에 처한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입주기업들은 건의문에서 ▲근로자 합숙소 건립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퇴근 도로의 개보수 ▲‘5.24 조치’로 중단된 16개 업체의 공사 재개 허용 ▲공단내 소방서 및 의료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요청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8월

북한동향 일지

<7월 일지>

보도일자	내 용
7/1, 중통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7/1, 중통	김영남, 7.1 국제김일성기금 이사장(조니 혼)과 일행을 만나 담화
7/1, 중통	김영남, 7.1 부룬디공화국 독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7/1, 중통	박의춘 외무상, 7.1 필리핀공화국 외무상대표단과 담화
7/2,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정형 現地了解
7/3, 중통·중방	김정일, 인민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7/4, 중통·중방	김영남, 7.3 베르데갑 독립 및 공화국선포 36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7/4, 중통·중방	김영남, 7.4 르완다공화국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7/5,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건설을 지원한 공로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7/6, 중·평방·중통	김정일, 平北 '낙원기계연합기업소와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
7/6, 중통·중·평방	김일성 사망(1994.7.8) 17주기 '추모행사', 7.6 진행
7/6, 중통·평방	김영남, 7.6 離任 駐北 니제르 대사 '부바카르 아다무'와 담화
7/7, 중통	최영림 총리, 7.7 평양 두단오리공장 및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 현지요해
7/7, 중통	최태복, 7.7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베트남 신임대사와 담화
7/10, 중방	김정일, '혁명과업 수행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등에 「감사」 전달
7/10, 중방	양형섭, 7.9 천진영빈관에서 장교려(中천진시당 서기)와 담화
7/10, 중통·중·평방	김정일,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아 경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
7/11, 중통·평방	김정일·정은, 중앙동물원 현지지도
7/10, 중통	'中-北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돌' 관련 駐北 中대사 류홍재, 7.10 양강도국제호텔에서 연회 마련
7/10, 중통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7.10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중앙영성자대회 참가자들 앞으로 축전
7/11, 중통	김영남, 7.11 봉화예술극장에서 '中 감속성 가무극원 조선방문예술단'의 지휘 성원 및 주요배우들과 담화
7/11, 중통	김영남·최영림, 7.11 몽골인민혁명 승리 90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
7/12, 중방	中 '호금도' 주석·'오방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7.11 인민대회당에서 北 친선대표단(양형섭) 접견 및 담화
7/12, 중통·평방	김영남, 7.12 중국 친선대표단과 담화
7/12, 중통·중방	김영남, 7.12 러시아 대통령에게 타타르스탄공화국 여객선침몰사고 관련 위문전문
7/13, 중통·중·평방	김정일·정은, 7.12 '중국 친선대표단과 중국인민 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 접견 및 만찬

보도일자	내 용
7/13, 중통·중·평방	김정일·정은,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지휘부 시찰
7/14, 중통	김정일·정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관람
7/14, 중통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7.14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시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
7/15, 중통·중방	김영남, 7.15 '중국인민 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단장 :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과 담화
7/16, 중통·중·평방	김정일·정은, 7.15 중국 訪北예술단 공연(감숙성 가무극원 무용극 '비단길위의 꽃보라') 관람
7/17, 중통·중방	김정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은하수극장개관기념 음악회 관람
7/18, 중방	김정일,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 림일성(보통강 혁명사적관리소 관리원), 리은순(평양맥주공장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
7/18, 중통·중방	北 전국 각지에서 도·시·군 인민회의(7.24)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회의'(선거법 해설, 대의원 후보자 추천) 진행中
7/18, 중통·중방	김영남, 7.18 인도 대통령에게 테러사건 발생 관련 위문전문
7/19, 중통	조선대표단(단장 : 박의춘 외무상), 7.18 몽골 대외관계상과 회담(대외관계성 청사) 진행
7/19, 중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7.19 권혁봉(黨 부부장)에게 김일성훈장 수여
7/20, 중통	北 노동신문 대표단(김원석 부주필), 7.19 '딩 테 후잉' 베트남 黨비서 겸 선전교육 부장과 담화
7/20,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7/20, 중통	김영남, 7.20 벨기에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
7/20, 중통·중·평방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7/21, 중통	박의춘 외무상, 7.20 新任 파키스탄 외무상 '히나 라바니 하르'에게 축전
7/22, 중통	최영림 총리, 7.22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정형 현지 요해
7/25, 중통	박의춘 외무상, 7.22 인도네시아 라오스 외무상 및 아세안 총서기와 각축 담화
7/23, 중통	박의춘 외무상, 7.22 印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 中 대표단('양결지' 외교부장), 러시아 대표단('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각각 담화
7/24, 중통·중·평방	김정일, 7.24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 방문(평양시 제264호구 제150호분구 선거장) 및 투표행사
7/25,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해군사령부 시찰
7/25, 중통·평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에 의해 駐불가리아 대사에 '주왕환' 임명
7/26, 평방	박의춘 외무상 일행, 7.25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전력성과 담화
7/26, 중통	北 내각,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4개장 60개조) 발표
7/26, 중통	김영남, 7.26 '쯔엥 떤 썩' 베트남 주석에게 當選 축전
7/28, 중통·평방	박의춘 외무상과 일행, 7.26 말레이시아 외무상과 회담
7/28, 중통·평방	北군사대표단 - 라오스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 7.28 평양에서 회담

보도일자	내 용
7/28, 중통	최영림 총리, 7.26~27 평양민속공원·태권도성지건설장·평양시 8월3일인민소비품 전시회장 현지 요해
7/28, 중통·중방	김영남, 7.28 移任 駐北 쿠바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7/29, 중방	김정일·정은, '5월11일공장' 현지지도
7/29, 중통	北 리영호 총참모장, 7.29 라오스軍 총참모장('싼냐학 품비한')과 담화
7/29, 중통	김영남, 7.29 모로코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
7/29, 평방	최영림, 라오스 수상에게 자연재해 관련 위문 전문

〈8월 일지〉

보도일자	내 용
8/1,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황해남도 큰물피해 정형 현지요해
8/2, 중방	김정일, 좋은 일을 많이 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서평양백화점 노동자 김정옥, 통역원 박영희 등)에게 '감사' 전달
8/2, 중통·중방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8.2 마케도니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축축 축전
8/3, 중통	러시아대통령, 8.2 김정일에게 큰물피해 관련 위문전문
8/3,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8.2~3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송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8/3, 중통·평방	김기남(黨비서), 8.3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대표단과 담화
8/4, 중방	김정일, 국립연극단 창작가·예술인·종업원들이 올린 편지에 친필
8/4, 중통	김정일, 8.4 中 후진타오 주석의 홍수피해 위문전문에 答電
8/5,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총리, 8.4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 요해 및 '협의회' 진행
8/6, 중통	김영남, 8.4 코트리브와르공화국 대통령에게 독립 51돌 즈음 축전
8/6, 중통	박의춘 외무상, 8.4 베트남 新任 외무상 '팜 빙 밍'에게 축전
8/6,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8/6,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총리, 자메이카 수상에게 독립 49돌 즈음 축전
8/8, 중통·중·평방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咸南) 현지지도
8/8, 중통·중방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8.8 싱가포르 국경절 46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축축 축전
8/10, 중통	김영남, 8.9 차드공화국 독립 51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8/10, 중통	최영림, 8.9 태국 수상 '잉락 쉬나와트라'에게 任命 축전
8/10,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8.6~10 인민경제 여러부문 현지요해
8/10, 중통	김영남, 8.10 아프리카 산토메 프린시페 공화국 대통령에게 當選 축전
8/10, 중통	최영림, 8.10 마케도니아 수상에게 再任 축전
8/11, 중통·중방	김정일, 김옥비 老婆(100세, 黃北 사리원시 거주)에게 「생일상」 전달
8/13, 중통	박의춘 외무상, 8.11 태국 외무상에게 任命 축전
8/14,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8.12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 현지 了解 및 '일꾼협의회' 조직
8/14, 중통·중방	김정일, 8.15 러시아 대통령에게 「光復節」 즈음 축전
8/16, 중통	김영남과 박의춘, 8.16 인도네시아 독립 66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8/17, 중통·중방	김영남, 8.17 離任 노르웨이 駐北 대사('디드리크 틴쎌트')와 담화
8/18, 중통	김정일, 8.17 水害 관련 위문전문을 보내온 시리아대통령에게 答전

보도일자	내 용
8/18, 중통	박의춘 외무상, 수리아외무상에게 외교관계 설정 45돌 즈음 축전
8/20, 중통·중방	김정일, 8.20 벨라루시 대통령의 北 水害 관련 '위문전문'(8.4)에 答電
8/20, 중통·평방	김영남, 8.20 헝가리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8/21, 중통·중·평방	김정일, 8.20 아침 러시아 국경역 '하싼' 통과
8/21, 중방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8/21, 중통·중방	김정일, 8.21 러시아 '아무르주' 도착 및 '부레이수력발전소' 참관
8/22,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평양-남포 구도로 개건공사장' 현지요해
8/23, 중통·중방	김기남(黨 비서), 8.23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 '선물' 접수
8/24, 중통·중방	김정일, 8.23 러시아연방 부랴티야공화국 방문
8/24, 중통	김영남·박의춘 외무상, 8.24 작별 방문한 駐北 가봉대사와 담화
8/24, 중통	김영남·박의춘 외무상, 8.24 우크라이나 '국경절' 즈음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各各 축전
8/25, 중통·중방	김정일, 8.24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 및 담화
8/25, 중통	김정일 -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 8.24 러시아 부랴찌야공화국 수도 올란 -우 데시에서 진행
8/26, 중통·중방	김정일, 8.25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내몽골)' 방문
8/26, 중통·중방	김정일, 8.26 중국 '허이룽강(흑룡강)省' 통과 및 午前 치치하얼시' 도착
8/26, 중방	김정일, 8.26 이집트 무력장 최고이사회 위원장의 北 폭우피해 위문전문에 '謝意 표명' 答전
8/26, 중통·중방	北-러 정부, 8.26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서' 조인
8/26,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총리, 8.26 러시아정부 경제대표단과 담화
8/28, 중통	김정일, 8.27 오전 中國 '길림성 통화(通化)시' 도착
8/27, 중통·중방	김정일, 8.27 러시아-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8/27, 중통·중방	김정일, 8.27 귀국길에 中國 '후진타오' 주석에게 감사 전문
8/27, 중통·중방	김영남·박의춘 외무상, 8.27 몰도바 국경절 즈음 대통령대리와 외무상에 各各 축전
8/28, 중통	김정일의 러시아 원동 및 시베리아지역 방문(8.20~25)에 관한 상보
8/28,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김기남 등 黨·政 책임일꾼들, 8.28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천 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기업소에 나가 청년들 축하
8/29, 중통	김정일의 외국방문 성과 축하 '공훈국가합창단 특별공연' 진행
8/29, 중통·중·평방	黨 군사委·국방委, "김정일의 외국방문(러시아·중국) 성과" 축하연회 개최 및 김정은 참석
8/30,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총리, 8.29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룡성기계연합 기업소 현지 요해
8/30, 중방	김정일의 '중국 동북지역 통과와 방문에 관한 「상보」' 발표

보도일자	내 용
8/30,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 내각총리, 8.30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각각 '국경절' 54돌 즈음 축전
8/31,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희천발전소건설장' 현지지도
8/31, 중통·중방	김정일·정은, 자강도 '룡림군' 현지지도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